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

대연동 · 문현동

 부산남구문화원
Busan Nam-gu Cultural Center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

대연동 · 문현동

목차



발간사

6

대연동

8

• 대연동의 유래

10

- 1) 대연동 동 이름의 유래
- 2) 대연동의 입향조(入鄕祖)

1. 대연1, 2동의 마을과 명소

17

- 1) 동두름마을
- 2) 솔밭마을
- 3) 신정마을
- 4) 천제등(天祭嶺)
- 5) 귀환동포수용소와 폐차수집소
- 6) 대연성당
- 7) 최민식 사진작가(1906 ~ 1987)

2. 대연3동의 마을과 명소

26

- 1) 용소마을
- 2) 대룡골
- 3) 경성대학교
 - (1) 경성대학교의 역사
 - (2) 이형기 시비(詩碑)
- 4) K-1비행장

- 5) 문화골목
- 6) 향파 이주홍 거리
- 7) 부경대학교
 - (1) 부경대학교 본관
 - (2) 미 제8군사령부와 스웨덴병원
 - (3) 부경대학교 박물관
 - (4) 워커 장군과 워커하우스
 - (5) 갯번덕
- 8) 용소서당
- 9) 장사소나무

3. 대연4동의 마을과 명소

41

- 1) 석포마을
- 2) 당곡마을
- 3) 석포목장
- 4) 유엔참전기념탑
- 5) 유엔기념공원
 - (1) 유엔기념공원(재한유엔기념공원)
: 등록문화재359호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 (2) 유엔기념공원 정문
 - (3) 추모관
 - (4) 중앙상징구역과 주 묘역
 - (5) 도은트 수로(Daunt 水路)
 - (6) 유엔군전물장병추모비

- (7) 유엔군위령탑과 제2자료실
- (8) 무명용사의 길
- (9) 유엔기념공원의 불거리
- 6) 유엔기념공원 밖의 공원
 - (1) 대연수목원
 - (2) 평화공원
 - (3) 조각공원

4. 대연5동의 마을과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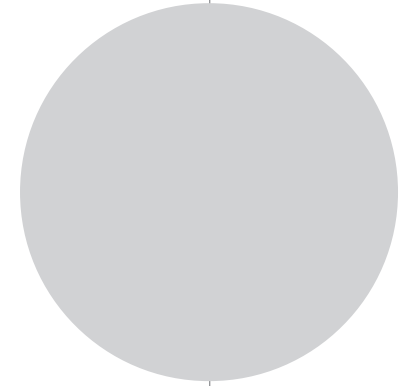
56

- 1) 못골마을
- 2) 대연출장소
- 3) 대연초등학교
- 4) 못골시장
- 5) 대연교회
- 6) 못골연못
- 7) 박천추 공(公)과 주산재(죽산 박씨 재실)

5. 대연6동의 마을과 명소

65

- 1) 구 부산공업중학교와 미 제6공군사령부
 - (1) 부산공업중학교
 - (2) 한국전쟁 후 군부대
- 2) 방송국마을
- 3) 작은 못
- 4) 황령산의 다른 이름 '반보기산'



문현동

72

• 문현동의 유래

74

- 1) 문현동 동 이름의 유래
 - (1) 문현1동의 '문고개설'
 - (2) 문현4동의 '지계골설'
- 2) 문현동의 입향조(入鄕祖)

1. 문현1동의 마을과 명소

81

- 1) 고동골마을
- 2) 문안마을(문현안동네)
- 3) 농막마을
- 4) 돌산마을
- 5) 벽화마을(돌산마을)
- 6) 돌산마을과 돌산공원
- 7)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 8) 황령산 코바위(배바위)
- 9) 만리성(萬里城)
- 10) 고동골고개, 전포고개, 문고개
- 11) 흙구디(흙구덩이)
- 12) 일본군 야외훈련장

2. 문현2동의 마을과 명소

93

- 1) 웃농막마을
- 2) 보영극장

- 3) 썩은다리(무지개다리)
- 4) 골동품거리
- 5) 문현금융단지과 그 일대의 옛 모습
- 6) 문현2동의 동천 수상가옥
- 7) 이중섭 화백의 <판잣집 화실>과 <문현동 풍경>

3. 문현3동의 마을과 명소

101

- 1) 지계골고개
- 2) 새마을고개와 솜털공장
- 3) 연동(蓮東)마을
- 4)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敵産家屋)'
- 5) 도시고속화도로 문현램프 2개소와 부산도시철도 2호선 3개 역
- 6) 문현3동에 정문이 있던 육군 부대
- 7) 문현 장고개
- 8) 문현동의 장고개 스텐양식기 공장

4. 문현4동의 마을과 명소

109

- 1) 지계골마을
- 2) 대성극장
- 3) 문현골창골목
- 4) 도살막(도서막) 거리
- 5) 장고개
- 6) 영계마을
- 7) 장자터

- 8) 노하다리(하구교)
- 9) 대선양조 공장에서 풍기는 구수한 주정 냄새
- 10) 우암선 철로와 한일오피스텔 인근 '굴다리'
- 11) 문현4동의 동천 수상가옥
- 12) 부산지역 마지막 연탄공장 '진아산업'
- 13) 조개잡이 배와 동천삼거리 부두교
- 14)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 15) 우암로변에 조성된 높고 긴 옹벽
- 16) 표민수수소(漂民授受所)
- 17) 해상교통 '편리호'의 문현동 선착장
- 18) 강선대(降仙臺)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를 발간하면서

부산 남구 대연동과 문현동의 유래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포함하여 마을의 역사와 삶의 발자취를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로 엮은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십여년 전에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를 재미있게 엮으려는 열풍이 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구도 <남구의 숨겨진 스토리>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야기는 유감스럽게 남구의 역사를 곡해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남구 향토사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를 발간하였으나, 그로부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남구의 향토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공기화 명예교수와 토박이 곽태욱 소설가 두 분의 노고로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를 남구문화원에서 발간하게 되었으니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지난번 남구 향토사의 발간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성장하며 보아 왔거나 들었던 대연동과 문현동의 모습을 펼쳐놓으니 우리 남구의 옛 모습들이 마치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남구는 1995년 분구 후 향토사 기록이 적어 빈곤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오류도 끼어 있습니다. 사실 분구 이전의 『남구지(南區

誌』(1994)에도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 오류를 바꾸어야 함은 물론, 남구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가 발굴되어 전해지도록 제도적 후원이 없었던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를 찾아서 발품을 팔고 인터뷰를 하는 등 공기화, 곽태욱 두 분의 노고가 컸음에도 남구문화원의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집필한 향토사가 책으로 발간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딜타이(Wilhelm Dilthey, 독일)는 “우리는 역사의 관찰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존재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과 같이 과거의 역사에서 더 나은 현재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남구의 두 마을 대연동과 문현동의 이야기로 떠나가 봅시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로 주파수를 맞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에 실린 글들이 남구 향토사의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필하신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부산남구문화원 원장 김철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

대연동 · 문현동

1

대연동

[집필] 공기화 _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대연동의 유래



1952년 대연동 (사진제공 :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결을 느끼다』 104페이지〉

경상좌수영의 좌수사를 지낸 승정원 승지 이행하가 편찬한 『내영지(萊營誌)』(1850)에서 '대연리는 본영 남쪽 15리에 있다(大淵里在南十五里).'라고 기록되어 있고, 생천언(못골연못)은 본영 남쪽 10리에 있다(在營南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못골연못이 거리상으로 보아 남천동과 같다. 이것은 기록의 오차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때부터 생천언이 있는 마을을 생천향(生川鄉)이라고 했다. 동래군에서 가장 큰 연못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대연리(大淵里)라고 하였다. 이곳은 큰 연못이 있어 못골, 지곡(池谷)이라고 불렸으며, 1740년에 편찬된 『동래부지(東萊府誌)』에 '대연리(大淵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1904년에 간행된 『경상남도 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 東萊郡家戶案)』에 지금의 대연동에 여러 마을이 나타나는데 지곡동(池谷洞), 용소동(龍沼洞), 석포동(石浦洞), 당곡동(堂谷洞), 대연동(大淵洞)이라는 마을이 공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연동의 큰 마을인 지곡마을(못골), 용소마을, 석포마을, 당곡마을 그리고 대연동은 지금 대연1동의 동두름마을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때 대일리(大一里)와 대이리(大二里)로 나누기도 하였다. 현재는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으로 5개 동으로 되어 있다. 대연2동은 주택 개량 사업(아파트 건립 공사) 등으로 대연1동에 합쳐져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연동 못골은 대연고개를 넘으면 처음 맞는 농촌마을이었다. 못골연못과 넓은 들판이 있었기에 다소 여유 있게 생활하였다. 대연3동의 바닷가에 수산전문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용소해수욕장과 넓은 송림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하였다. 대연동의 급격한 변화는 1965년 대연고개가 낮아지면서 6차선 도로가 조성된 때로 볼 수 있다. 또 토지개발 사업으로 넓은 논과 못골연못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농촌마을은 도시 분위기를 갖춘 주택가로 변모하였고, 인구 또한 급증하였다. 대연동은 하나의 마을에서 대연1동 ~ 대연6동으로 분할되었고 크게 발전하였다.

1) 대연동 동 이름의 유래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의 저자인 도꼬오(都甲玄卿)는 못골연못의 축조나 양식과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옛 연못(舊池)이라고 하였다. 큰 연못과 넓은 들판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마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때에도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때에는 생천향(生川鄉)이 있었는데, 김의환의 『부산의 고적과 지명』에 생천향은 오늘날 대연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연동은 일찍이 못골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에 못골연못을 수리조합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못 위에 제방을 쌓아 연못을 크게 만들고 하천에 독을 쌓았다. 못골연못은 세 개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의 연못인 옛 연못(舊池), 1930년에 축조했던 연못, 그리고 새로운 연못 위에 얇은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1950년에 메워진 연못이 있었다. 남구청 뒤에 더 마트 앞 교차로가 있는 쪽에 작은 못이 있었다. 큰 연못은 동천고등학교 뒤의 황령산 산록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작은 못은 문현동 쪽 산록에서 흘러내린 물에 의해 형성되었다.

대연동의 주요 마을은 못골연못의 물을 이용하였다. 즉 대연1동의 동두름마을, 대연3동의 용소마을, 대연4동의 석포마을과 당곡마을, 대연5동의 못골마을(지곡마을)은 못골연못에서 흘러내린 물로써 농사를 지었다.

동래군에서 가장 큰 연못이라 하여 대연리(大淵里)라고 했던 못골은 한자로 지곡(池谷)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못골이란 용어는 '못골시장'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곡은 지곡향우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연동의 큰 마을은 300 ~ 500년 전후로부터 형성되었다.

2) 대연동의 입향조

대연동에 오래전에 형성된 마을은 못골마을, 용소마을, 석포마을, 당곡마을이 있다.

(1) 대연5동의 못골마을의 대표적인 성씨는 죽산 박씨, 여산 송씨와 곡부 공씨이다.

죽산 박씨의 입향조는 박수(朴燧)인데, 그는 진사시에 급제한 후 은거하고 있었다. 기묘년(1459년)에 세종의 6남인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관노의 밀고로 독살되었다. 박수는 난을 피하여 대연동 못골까지 왔다.

그의 고손자인 박천추(朴天樞) 공은 1569년에 출생하여 동래향교에서 공부하면서 그의 처남 문택용(文擇龍)과 함께 무술을 익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동래성전투에서 송상현 동래부사를 도와 싸웠으며 동래성이 함락되자 소산역(지금의 남산역 근처)에서 유격전을 벌려 큰 공을 세웠다. 1605년(선조 38)에 그의 공을 높이 인정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녹을 받았다. 후에 충렬사에 합사되어 신위를 모시고 있다.

못골의 죽산 박씨 입향조와 박천추 공 등 선대들의 산소는 죽산 박씨 종친들이 세운 학교인 세연고등학교 내에 있다. 입향조인 박수는 금성대군의 화를 피하여 양산을 거쳐 못골로 와서 터전을 잡았다. 이것이 대연동에서 최초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죽산 박씨 지곡문중의 제실은 세연고등학교 내에 있는 '주산재'라고 한다.

여산 송씨의 입향조는 동주공파(東州公派) 반여동 계로 못골로 왔던 사람은 송치호(宋治浩)이다. 그는 1697년에 출생하여 1725년경에 못골에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무자년에 작고하여 못골 뒷산인 갈미봉에 묘소가 있다.

곡부 공씨의 입향조인 공자 74대손인 공헌주(孔憲周)는 천석꾼인 집안에서 남촌면의 소작인들에게 세경을 받는 책임자로 1850년경에 못골로 이주하였

다. 그의 산소는 부산예술대학교 위에 있다. 그의 증손인 공영화(孔永和) 공군 소장은 공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하였다.

(2) 대연3동의 용소마을은 마을 근처에 용 모양의 개울에 물이 빠지지 않는 늪지대가 있다고 하여 '용소(龍沼)'라고 하였다

지금의 부경대학교 정문 건너편 마을이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성씨는 경주 이씨, 김해 김씨와 금산 김씨이다. 용소마을의 입향조는 경주 이씨 소판공의 26세손인 이항징(李亢澄)인데 약 530년 전인 조선조 초에 용소마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경주 이씨의 족보에 용소마을의 옛 지명이 있다. 이 씨가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다고 하여 고이리(古李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해 김씨의 입향조는 시조로부터 58세손인 김영립이다. 그는 1526년에 출생하여 1555년경에 경북 청도에서 용소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는 통정대부 예참판(通政大夫 禮參判)에 추증되었으며 묘소는 우암동에 있다. 그의 조부는 삼족당 선생(三足堂 先生)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군현을 다스렸으며 청도 운문사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삼족(三足)이란 오래 살았으니 족하고, 벼슬도 그만큼 했으니 족하고,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술과 고기가 있어 먹는 것도 족하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삼족당 선생이라고 하였다.

금산 김씨의 입향조는 김신(金僉)의 16세손 되는 김진엽(金震曄, 1626 ~ 1681)이다. 그는 인조 병인년 6월에 출생하여 1655년경에 창령군 영산읍에서 용소로 이주하였다. 김신의 24세손인 김재일(金在一)은 1875년 경에 인근의 청소년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용소마을에 서당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제공하였다. 초대 훈장으로는 동래의 한학자인 송문섭을 모셨다. 김재일이 작고하자 이 서당에서 공부하였던 사람들이 비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를 '비석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금산 김씨 용소문중의 제실은 용소마을에 있다.

(3) 대연 4동의 석포마을은 조선조 초부터 있었던 국마장(國馬場)인 석포목장의 관리를 하는 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명칭에서 기인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동래 정씨 시조인 화문공 23세 손인 정춘세(鄭春世)이다. 그의 부친은 동래성 수문장으로 통정대부에 추존된 정복덕(鄭復德)이며 묘소는 거제동 하마정에 있었다. 정춘세는 1991년에 출생하여 대연3동 용소마을에 이주해 와서 거주하다가 1615년경에 석포마을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묘소는 지금의 남구소방소 옆에 있었다. 동래 정씨 석포문중의 재실은 석포마을에 있는 석산재이다.

(4) 대연4동 당곡마을은 유엔기념공원 근처의 마을이다.

예부터 이 마을에 대연3동의 용소마을의 당(堂)이 있어서 당곡(堂谷)이라고 하였다. 이 마을의 성씨는 남평 문씨, 달성 서씨, 경주 최씨다. 남평 문씨는 두 파가 당곡에 입향하였다. 해운대구 반여동 쪽에서 왔던 집안과 초읍에서 온 두 집안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훈련봉사로 지낸 문이호(文以暉)의 아들 문상장(文尙章)의 부인이 죽산 박씨이었다. 이것을 보아 문이호가 대연동에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산소도 이곳이니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들은 약 300년 전에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달성 서씨는 경북 달성군을 본관으로 하는 고려조 판도판서 봉익대부(版圖判書 奉翊大夫) 서진(徐晉)의 14세손인 서윤국(徐允國)은 두 아들을 두었다. 서화선(徐化善)과 서화일(徐化日)을 데리고 대연동 당곡으로 왔다. 화선의 아들인 서종한(徐宗漢)은 일광에 거주하였고, 서화일(徐化日)의 자손은 당곡에서 번성하였다. 이들이 당곡에 입향한 것은 약 3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서진의 21세손인 서봉출(徐鳳出)은 대연초등학교 1회 출신으로 동문중학교 교사, 남성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경주 최씨의 시조는 최치원이다. 당곡의 최씨는 경주 최씨 사성공파(慶州 崔氏 司成公派)이다. 경주 최씨가 대연동 당곡에 입향한 때는 약 300년 전이며, 입향조는 23대 가선대부 최달만(崔達滿)이다. 그의 묘소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내에 있다. 경주 최씨 당곡 문중의 재실은 당곡마을의 옛 연못 자리에 세워져 있다.

01 대연1, 2동의 마을과 명소



1950년대 대연1, 2동 <출처 :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1) 동두름마을

동두름마을은 못골마을과 용소마을 사이에 있었는데 못골에선 이곳의 지대가 다소 높아서 ‘고개들’이라고 하였다. 이 마을의 형성은 이웃의 못골이나 용소 두 마을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04년에 발간된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에는 “지곡동, 용소동, 석포동, 당곡동, 대연동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구향토사에선 대연동이 동두름마을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해운대로 가는 수영로와 용호동으로 가는 길이 합쳐지는 교통요지였기 때문에 일본식 집이 많았다. 일제

는 이곳에 치안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의 지서(오늘날 치안지구대)를 두어 문현동 일부부터 수영까지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 마을에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공장을 세우기도 하여 직공들과 합쳐 인구가 증가되었다.

이곳은 원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전쟁 후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고 1960년경에 대연성당이 이곳에 서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2) 솔밭마을(연화마을)

대연5동주민자치센터의 뒤쪽에 있는 솔밭마을은 1955년경까지 고려시대의 고분이 있었던 곳이다. 고분 옆에는 1929년에 세워진 사립용연보통학교(대연초등학교 전신)가 있었다. 이 학교는 1937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공립학교가 되어 대연초등학교가 되었다. 그 학교 운동장은 해방 후에 '용주면 운동회'를 할 만큼 넓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에게 징발되었다. 그러다가 1954년 10월에 지금의 대연초등학교 쪽으로 이전하였다.

1945년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지금의 부산공업고등학교의 자리는 귀환동포수용소였다. 1957년에 수용소가 폐쇄되어 한국전쟁 중 파괴된 자동차를 모아 수집한 폐차수집소가 되었다. 갈 곳이 없는 수용소의 주민들을 솔밭과 천제등 쪽에 미군들이 집을 지어 이주케 하였다.

대연초등학교가 일본인 학교였던 제9심상소학교 자리로 옮겨가자 고분과 송림이 있었던 지역을 새로운 주택으로 만들어 귀환동포수용소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배당하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분 가에 심겨 있었던 커다란 소나무가 많이 남아 있어 '솔밭마을(연화마을)'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솔밭마을이라고 하면 대연1동 주민들도 모른다. 그 마을에 가면 경로당은 '솔밭경로당'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의 길가에 '정학조공덕비'가 있다. 이 마을이 세워질 때 이웃 석포마을인 대연3동의 정학조 선생이 우물터를 제공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공을 잊지 못해 공덕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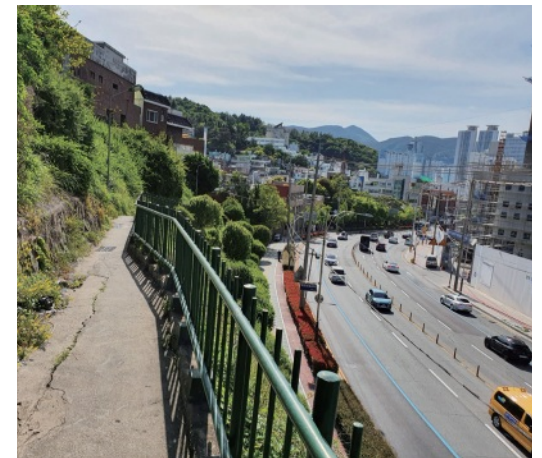
3) 신정마을

대연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대연동에서는 대연고개, 신동고개, 신정고개라고 한다. 1900년 초반 하더라도 대연고개는 고개가 높고 송림이 우거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었다.

대연고개는 대연동을 비롯하여 남구, 수영구, 해운대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이 고개는 부산진시장 등이 있는 다소 개발이 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나아가는 고개였다. 이 고개의 착평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고개 너머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즉 남구,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괄목하게 발전하였다. 이 고개는 두 차례에 걸쳐 착평되었는데 1차 착평은 1951년 미군에 의해 많이 낮춰졌다. 1965년 이후 대연동과 용호동 지역의 토지 개발로 2차 착평 공사를 하였는데 고개가 크게 낮아졌다.

이 고개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는데, 1909년 이후에 감만2동 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입구와 남광시장 쪽에 한센병 치료소인 상애원이 세워졌다. 그곳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신정고개 쪽의 골짜기에 움집을 지어 살면서 우암동 성지고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야시고개'를 넘어 치료소에 다녔다.

1935년경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한센병 환자들은 모두 소록도로 강제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범일동, 좌천동 쪽의 부산항 매축공사 시에 집이 철거당한 사람 등에게 신정고개 지역을 개발하여 주택을 배당하여 주었다. 도로, 수로 등이 잘 정비하여 '새 동네'라는



대연고개 <출처: 공기화>

뜻으로 '신정(新町)'이라 하였다. 해방 후에 이곳을 '신동(新洞)'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해방 후 귀환 동포들이 이곳에 들어와 거주하였고,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하여 이곳에 거주했던 주민이 급증하였다.

1968년에 대연고개의 착평공사가 완공되어 옛날에 넘을 때 고생했던 고개였으나 의문스러운 정도였다. 길도 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신정마을에 시장이 형성되어 이곳도 괄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가 주민들은 주택개발공사로 떠나갔다. 지금 주택 공사로 신정마을, 천제등마을, 사택마을이 모두 사라지고 아파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천제등(天祭燈)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다. 부산 남구에서 기우제를 드렸던 곳은 대연동의 천제등(天祭燈), 용호동의 장자산 8부 능선 등이었다. 우룡정 근처에서 1929년까지 기우제를 드렸다고 하여 천제등이라고 불렀다.



천제등에 있는 우룡정 <출처: 공기화>

천제등은 황령산의 능선인 천제산에 있다. 그곳 산정에는 우룡정과 마을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다. 우룡정에 올라가 용호만을 바라보면 시원하게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곳에 고사포부대가 있었다. 우룡정이 된 곳에 고사포를

설치하려고 했던 곳에 2기의 무덤이 있었는데 1기는 이장하였으나 1기는 묘를 파다가 팽이와 삽이 부러져 이장하는 데 실패하였다. 일본군은 무덤의 이장을 무시하고 고사포부대를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해방 후에 고사포가 철수되었다.

이곳에는 벚꽃 나무가 많이 있어 벚꽃 철에는 그곳은 꽃 천지가 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5) 귀환동포수용소와 폐차수집소

남구에 있었던 '귀환동포수용소'라고 하면 '우암동소막'이라고만 할 것이다. 지금의 부산공업고등학교 자리는 해방되자 주로 일본에서 귀국했던 재일동포들이 거주했던 '귀환동포수용소'였다.



부산공업고등학교 교문 앞 <출처: 공기화>

그곳은 해방 전에는 일본군부대였다. 그곳에는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3동 큰 건물이 있었는데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 일본의 패망 후에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였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수용소가 되었다.

1946년에 산 너머 우암동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이곳에서 전염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다. 이곳의 주민들은 뒷산인 우룡산에 올라가 소나무 등을 베어 뿔감을 사용하는 통에 민둥산이 된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귀환동포를 '우

환동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58년에 그곳은 한국전쟁 시에 전국에 널려있었던 폐차들을 모아 두었던 폐차량수집소가 되었다. 그곳에 수용되었던 주민들을 예전 대연초등학교의 자리였던 대연1동 솔밭마을과 천제등이라고 하는 대연고개 쪽의 언덕바지로 이주시켰다. 귀환동포수용소 자리에 있었던 폐차수집소를 세워 196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현재 부산공업고등학교는 부산공업고등학교 야간부가 승격하여 부산공업고등학교가 되었다.

6) 대연성당

대연성당은 1959년 4월에 이태리 출신의 범덕예(프란치스코) 신부가 설립 허가를 받아 1961년 4월에 범일성당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범 신부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그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이 좋아했다.

그는 중국에서 봉사하다가 1958년에 부산에 도착하여 문현동과 수영 사이에서 사역지를 찾다가 농사를 짓는 주민이 많은 대연동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1960년 8월에 대연동에서 용호동으로 내려가는 국도 가에 2,000평을 매입하여 콘서트 건물을 지어 가난한 주민들에게 옥수수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등을 나눠주었으며 급식소를 두어 이곳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다. 그는 주일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였고, 용호농장에 거주하던 한센병 환자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1961년 1월 10일에 은하유치원 자리에서 임시 성당 건물을 낙성하여 4월 10일에 이곳에서 17명의 신자와 함께 성전 축성한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였

다. 4월 24일에 부산교구장은 범일성당에서 분리하여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범 신부는 이곳에 '골베'라는 유치원을 개설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곳은 평일에는 유아교육장으로 개방되었고, 주일에는 임시 성전으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본당 건물은 1962년 3월 24일에 준공하여 12월 8일에 낙성하여 주보 성인으로 빼도로의 성 안토니오를 성인으로 택하여 동고상을 모셨다.

이 성당은 가난한 이웃에게 식량을 제공하였고, 유치원을 세워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무료 영화를 감상하게 하였으며 넓은 뜰에서 체육 행사도 하였다. 후에 고아원을 세워 사회사업도 하였다.

이 성당에서 문현성당, 오륙도성당, 용호성당, 남천성당, 석포성당, 못골성당, 이기대성당으로 분할되었다.

대연성당 본당에서 평화장터를 개설하여 재활용품을 주민들과 대학생 및 외국인들에게 제공하여 나눔 행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공부, 평신도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최민식 사진작가(1906~1987)

최민식 선생은 1928년 3월 6일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났다. 1945년 그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로 화가가 되려고 서울 용산에 기거하면서 낮에는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미술학원에 다녔다. 그는 한국전쟁이 나자 육군철도연대에서 활동하다가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최민식 선생(1906~1987) (출처 : 공기화)

군 복무 후 그는 1955년 도쿄중앙미술학원에서 2년간 미술 공부하다가 한 현책방에서 에더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273명의 사진작가가 찍은 503장의 사진이 담긴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이란 책에 매료되어 미술 대신 사진으로 진로를 바꿔 독학으로 사진 공부를 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인물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의 사진은 가난한 사람들, 노인, 여인, 전쟁고아, 달동네, 시장 풍경 등을 찍어 1968년에 펴낸 『인간 1권』을 펴낸 이후 2009년까지 14권을 출간하였다. 2008년 자신의 사진 원판 10만여 장 등 13만여 점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여 민간 기증 국가기록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세인들은 50년간 사진을 찍은 그를 '카메라의 렘브란트', '거지 작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사진은 사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진을 통하여 어두운 사람의 삶을 사회에 고발하기도 하였으며, 자신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그들과 따뜻하게 살려고 하였던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대연동에서 거주하였으며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2013년 대연1동 자택에서 85세 일기로 영면하였다.

|수상과 경력|

- 1963년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서 3점 입선
- 1964년 한국국전에서 입선, 1965년 한국국전에서 특선
- 1966년 US카메라 공모전에서 입상, 프랑스 꼬냑국제사진전에서 시명예상 수상, 영국 <사진연감 Photography Year Book> 6점 특집으로 수록되면서 스타 사진작가로 선정되어 '카메라의 렘브란트'로 격찬을 받았다.

- 1987년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지의 사진전에서 220점이 입상하였다.
- 1967년 부산시문화상, 1973년 미국사진협회상, 1974년 한국사진문화상, 1985년 현대사진문화상, 1987년 예술문화대상 본상, 1995년 대한사진문화상(창작상), 2000년 옥관문화훈장, 2001년 대한민국옥관문화훈장, 2008년 국민포장, 2009년 부산문화대상

|기타 경력|

- 1990년 ~ 2011년 부산대, 경성대, 창원대, 경북산대, 동아대에 출강하였다.



최민식 작품 '감천문화마을' <출처 : 최민식>

02 대연3동의 마을과 명소

1) 용소마을



1952년 용소마을의 전경 <출처: 부경근대사연구소장 김한근>

용소마을은 대연동에서 두 번째로 생긴 마을이며, 대연3동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연동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 마을은 오랜 예전에 늪지대의 모습이 용이 일어나 하늘로 오르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용소(龍沼)라고 하였다. 이곳에는 겨울에 물이 빠지지 않은 논이 있어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썰매타기 하며 놀았다.

이 마을에는 바다가 언덕으로 된 갯등인 ‘갯번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바닷바람을 막아주었다. 마을의 앞바다는 썰물 때는 100미터 정도 물이 빠질 정도로 수심이 얕았고 고운 모래로 조성된 모래사장인 용소해수욕장이 있어 부산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다.

소금을 생산하던 곳이 용호동 쪽으로 가기 전에 소금 동이가 네 곳이 있었던 사분개(四盆浦)에서는 소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용소마을 근처 바닷가의 모래와 민물이 흐르는 냇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지금 대연자이 아파트 근처로 추정된다. 이곳은 지형의 변화로 물길에 달라져서 소금동이가 폐쇄되어 용호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곳의 성씨는 경주 이씨, 김해 김씨, 금산 김씨, 남평 문씨, 금령 김씨, 언양 김씨 등이다.

이 마을에 조선조 말에 용소서당이 세워졌고, 1941년에 수산대학이 바닷가에 세워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향학열이 다른 마을보다 높다. 이 마을에서 논길로 부경대학교에 가는 곳에 ‘큰새미’라는 물이 맑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큰 샘이 있었다. 물이 풍부하여 농사가 잘되어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를 잘한다고 소문난 마을이다. 지금도 금산 김씨 일가들은 매일 마을의 재실에 모여 점심 식사를 나누며 친목을 더하고 있다.

2) 대룡골

이 마을의 이름은 대동골이 아니라 ‘대룡골(大龍谷)’이었다. 옛사람들은 황령산을 용머리로 보고 경성대학교 뒷산까지의 연봉을 용의 등, 부경대학교 내의 작은 송림 언덕을 용미로 보았다. 산의 골짜기를 대룡골이라고 하였다. 이 고장 사람들이 대룡골이라는 발음이 잘되지 않자 ‘대동골’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에 집이 한 채도 없었고,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집이 3채밖에 없었다. 그곳에 땅이 있었던 정 씨, 언양 김씨의 집과 작은 암자가 전부였다. 여기 있었던 세 집이 “우리끼리 대동단결하자.”라고 하여 ‘대동골’이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

‘대룡골’은 대연3동의 옛 군수사 부대였던 혁신지역의 안쪽의 산골 마을이었다. 이곳은 중앙 약수터 등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 많아 그런지 지금부터 40년 전만 하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돌만 들추기만 하면 가재가 나왔다. 이곳의 작은 암자가 있었던 넓은 숲은 초등학교 가을 소풍의 장소였다.

1970년대에는 젖소를 분양받아 기르는 농장이 조성되어 대룡골이라는 이름을 대신 ‘낙농부락’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곳에 제약회사 등 공장이 들어오면서 집들도 많이 늘어났다. 후에 골프연습장이 서고 황령터널이 뚫리고 길이 정비되자 아파트가 이곳저곳에 세워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니게 되자 인구가 급증했다. 지금 부산 남부경찰서와 대동골문화센터가 이곳에 있다.

이 마을의 뒷산에 측백나무 숲과 샘터가 많아 바람고개까지 힐링을 할 수 있는 산길이 정비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3) 경성대학교

(1) 경성대학교의 역사

이 학교는 1955년 6월 30일에 경남사범대속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김길창 목사이며 학교법인 한성학원에 속해있다. 이 재단에 속한 학교는 대동고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선화여자고등학교 등이다.

영도에 있을 때는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1979년 부산 남구 수영로 309번

지(대연동)으로 이전하여 부산에서 부산산업대학이 되면서 4년제로 승격하였다. 198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5개 단과 대학에 39학과로 2,230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를 이어 세 번째로 종합대학교로 개편되었다.

1988년에 교명을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라고 하였다. 현재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산학혁신융합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예술종합대학, 생명보건대학, 글로벌학부로 학부생 12,210명, 대학원생 925명이 수학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예술대학교 내의 홀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각종 전람회, 음악, 연극 공연장, 음악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벚꽃이 필 때면 학교 뒷산은 꽃천지가 되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2) 이형기 시비(詩碑)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형기 교수는 진주에서 1933년에 출생하였다. 1950년 『문예』지에 「비 오는 날」로 16세 나이로 등단하여 2003년에 제52회 서울사랑 시인상 문학 부문, 2002년에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그는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지내다가 1987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지냈다. 경성대학교 재직 시에 발표한 「호수」라는 시가 경성대학교 박물관 앞의 뜰에 세워져 있다.

그의 시는 초기에는 존재의 허무를 내면화시켜 그에 대한 자아의식적 반응을 억제하였고, 후기에 존재의 허무를 표면화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자아의식의 반응을 돌출시켰다.

호수

이형기

어길 수 없는 약속처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와 같이 무성하던 청춘이
어느덧 잎 지는 이 호숫가에서
호수처럼 눈을 뜨고 밤을 새운다

이제 사랑은 나를 울리지 않는다
조용히 우러르는
눈이 있을 뿐이다

불고 가는 바람에도
불고 가는 바람처럼 떨던 것이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신비는
어디서 오는가

참으로 기다림이란
이 차고 슬픈 호수같은 것을
또 하나 마음속에 지니는 일이다



이형기 시비(詩碑) <출처: 공기화>

4) K-1비행장

한국전쟁이 나자 대연동의 학교는 징발당하였다. 대구역에 적의 포탄이 날아 오자 그곳에 있던 임시피란정부,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미8군 사령부가 부산수산대학의 본관에 이전해왔다. 사령관인 워커 장군은 전장을 수시로 다니며 지휘하기 위하여 비행장이 필요하였다. 이곳을 K-1 비행장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L-19 경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이착륙하였다. 비행장의 위치는 현재 남부 소방서 맞은편부터 대남로터리까지이다. 이 비행장

은 미8군사령부였던 수산대학교 본관으로부터 비행장까지 직선도로가 있었다.

이 비행장은 1950년대까지 존속하다가 조선방직 사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 하였다, 지금은 상가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다.



1952년 대연동, 사진 중앙의 신작로 중간쯤 오른쪽 마을로 비스듬하게 향하는 희미한 직선의 도로가 'k-1' 비행장의 활주로이다.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5) 문화골목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사이의 옛 K-1비행장 부지 일부에 문화골목이 있다. 이 골목은 2008년도 부산시 건축협회상을 수상한 최윤식이 옛집을 보존하고자 이곳의 건물 여러 채를 구입하여 담을 헐고 기존 건물들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은 부산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활동을 하기 전에 시작한 도심의 건축 문화 활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찻집, 카페, 맥주집, 드로잉 공부하는 곳, 연극,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 처음으로 오는 이는 미로 같아서 낯선 골목으로 나오기 일쑤이다. 대학생이 많이 찾는 이곳은 젊은이에게 명소인데, 나이 든 노인이 가기에는 낯설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의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화골목 전경 <출처: 공기화>

6) 향파 이주홍 거리

맥주를 좋아하며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향파 이주홍(1906 ~ 1987)은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여 1925년에 신소년에 ‘뱀새끼와 무도’라는 작품으로 문학을 시작한 우리나라 문학의 태두이다. 특히 김정한 등과 함께 부산의 문학의 초석. 그의 문학 장르는 아동문학(동화), 시, 시조, 수필, 소설, 번역문학 등이며, 서예와 서화는 대가 수준, 미술과 대금은 명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의 최종 학력은 보통학교이다. 그는 동래고등학교 교사와 부산수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1949년부터 1972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부산수산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정년 퇴임을 하였으니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제1호가 된다.

향파문학비는 이주홍



향파의 수묵화 <출처: 공기화>

문학재단이 2006년 6월 2일 향파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종합강의동 앞 잔디밭에 건립되어 있다. 그의 작품인 ‘해변’의 후기에서 발췌한 글이 새겨져 있다.

“작품은 곧 발언이다.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몸부림이거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이거나, 필경엔 발언 이상의 것일 수가 없다.”



이주홍 교수의 문학비 <출처: 공기화>

향파 선생은 대연동 못골에 있었던 수산대학교 관사에서 거주했던 적도 있었다. 이곳에서 쓴 작품은 ‘비 오는 들창’이다.

부경대학교 북쪽 담에 대연3동의 사업으로 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향파 이주홍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곳의 담을 따라 약 100m에 걸쳐 향파의 작품인 아동문학 내용의 일부, 시, 동시 등과 서화와 그가 그린 작품집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길을 걸으면 향파 선생님의 동시, 수묵화와 서예에 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 부경대학교

(1) 부경대학교 본관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수산전문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대학 안은 용소해수욕장, 사분개, 해방 후에 AFKN송전소, 6.25직후에 미8군사령부, 스웨덴적십자병원 등이 있었다. 이곳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역사를 쫓 수 있다. 송림이 푸른 언덕 곁에는 국내의 한 유명 기업에서 헌납한 ‘장보고관’에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곳이다.

|부경대의 본관, 부경대, 공업대 통합비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하여 부경대학교가 되었는데 두 대학교의 연혁이 새겨진 석비가 있다.

[표. 부경대학교의 연혁]

부산수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교	
1941	부산고등수산학교(4년제 전문대학)	1924	부산공립보습학교
1946	국립부산수산대학으로 승격	1940	부산공립공업학교
1986	학부설치인가(수산해양, 이공, 사회과학)	1950	부산공업고등학교
1990	종합대학교 승격	1963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1996 7.4	부산공업대학교와 통합	1973	국립부산공업전문대학
		1983	부산개방대학
		1988	부산공업대학
		1990	산업대학원 신설
		1993	부산공업대학교
		1996	부산수산대학교와 통합

1941년 용소유원지와 용소마을 일부가 있었던 대연3동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전문학교를 건립하였다. 학교 앞에는 넓은 개펄이 있어 어패류 양식에 적합했는지 한때 이곳 근처에 소금을 생산하던 사분개(四盆浦)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부경대학교 본관 <출처: 공기화>

이 학교는 국립수산대학, 국립수산대학교가 명칭 변경되어 존속하다가 1996년 7월 4일에 국립부산공업대학교와 통합하여 부경대학교가 되었다.

(2) 미 제8군사령부와 스웨덴병원

수산대학교의 본관은 1950년 9월부터 미8군사령부로 사용하였다. 이 미군사령부는 용산으로 이전하였고, 서면에 하야리아 부대가 세워졌다. 수산대학교의 모든 것이 징발되어 영도에 임시학교로 있었지만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였다. 1957년 2학기야 부산수산대학의 학생들은 본교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 캠퍼스 내에 있었던 AFKN 송신소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철수하였다.



1954년 스웨덴적십자병원 의료진 <출처: 공기화>

1953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자, 부산상업고등학교에서 활동하였던 스웨덴적십자병원이 수산대학에 본관, 도서관 및 강의실은 물론이고 콘서트 건물을 여러동 짓고 병원으로 이용하였다. 이곳에서 유엔군뿐만 아니라 인민군 부상병을 치료해 주었으며 대민 지원으로 많은 부산 시민들을 치료하였다. 병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치료받았다고 한다.

(3) 부경대학교 박물관

부경대학교 박물관에 들어서면 1층에 학교 역사에 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주로 수산 관련 박물관이다. 1970년대까지 바닷가 잔디밭에 방치해 두었던 야치형의 고래 뼈가 있었다. 이 뼈는 마치 개선문처럼 세워져 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고래의 갈비뼈였다. 이 뼈는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고래에 대한 것 중에 고래 수컷 생식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컸다고 한다. 보관하고 있는 액체에 의해 세월이 가자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경대학교 박물관 <출처: 공기화>

어류와 바다의 생물을 박제로 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부산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많은 상식을 제공해준다. 또한 이 박물관은 선사시대의 무덤 등에 대해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4) 워커 장군과 워커하우스

• 워커 장군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텍사스주 출신,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장교로 참전. 그의 증손자까지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집안.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튼 장군의 휘하에 있으면서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독일 제3제국 국방군의 사막의 영웅 롬멜이 이끄는 전차부대를 격파 중장으로 승진하였다. 종전 후 5군 사령관에 이어 미 제8군 초대 사령관이 되었다.



워커(Walton H. Walker) 장군 <출처: 공기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지상군 총사령관이 되어 낙동강 전투현장에 사병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적과 싸웠다. 워커 장군은 ‘부산까지 밀리면 대살육이 일어나니 사수하느냐, 죽느냐이다.’라며 장병들을 독려했다.

8월이 되어서야 2개의 워커 라인을 긋고 배수의 진을 치고는 낙동강 아래로 남하하려는 북한군을 시간을 끌며 부산교두보전투(일명 낙동강전투)를 전개하였다. 한때는 상주와 안동이 점령되고 포항을 잃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영천전투에서 승리하여 북한군의 남침을 막을 수 있었다. 막강한 공군의 힘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인천상륙작전의 토대를 만들며 한국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이자 미 제8군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대장으로 승진 상신을 한 상황에서 12월 22일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12월 23일에 아들의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였다. 그는 사후에 대장으로 추서되었다. 워커 힐도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이태원에 있었던 그의 동상이 평택으로 이전하였다.

1950년 9월 5일에 미 제8군사령부가 대구에서 부산의 부산수산대학으로 이전하였다. 워커 장군은 이곳의 작전지휘본부(워커 하우스)에서 낙동강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은 맥아더 장군만 알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숨은 영웅인 워커 장군을 잘 모르고 있다.

• 워커하우스

작전지휘본부를 짓기 위하여 용호동 바닷가에서 돌을 가져와 이것을 넣은 콘크리트의 벽의 두께가 80cm나 된다. 워커 장군, 작전참모 및 지휘관들이 이곳을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낙동강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곳이다. 북한군들이 김일성의 지시대로 부산을 점령하여 마무리하려고 이 전투에 집중하다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허를 찔렸다.

미8군이 이곳을 철수한 후에 대학이 징발되어 영도에서 공부하던 수산대학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어서 스웨덴적십자병원이 주둔하여 수산대학 당국은 그들이 워커하우스를 보고도 이곳이



워커하우스 <출처 :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무엇을 했던 곳인지 모르고 있었다. 다만 장군이나 장교의 숙소라고 추측하였을 것이다. 이곳은 수산대학교 50년사나 70년사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늦게야 이곳이 미8군의 작전지휘본부였던 워커하우스인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 당국은 1970년대까지 이곳을 강의실의 책걸상을 넣는 창고와 야간 경비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1980년에 이곳을 학생회관을 사용하다가 화재 끝에 벽체만 남기고 다 타버렸다. 화재 후 복원하였으나 지붕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고 모양도 달라 원형 건물과 다른 건물로 남아 있다. 이 건물은 부산광역시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으로 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조사를 하던 중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잠정 보류가 된 상황에 있다. 다시 신청할 시에 1순위가 워커하우스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5) 갯번덕

1941년 이전에 학교 내에 있었던 용소해수욕장과 송림과 잔디밭은 부산의 유원지였다. 이곳에는 약 2만여 평에 소나무가 우거진 솔밭이 있었고, 바닷물이 얇은 긴 백사장, 잔디밭과 함께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의 모래톱에는 조개와 맛과 해초가 많았다. 용소유원지에 초등학교의 소풍 장소와 조선방직 등 직장에서 야유회 왔던 곳이다.

부경대학교 일대와 작은 송림 언덕에 퇴적층 흙으로 되어 있다. 이곳 근처의 언덕을 ‘갯번덕’ 또는 ‘깨번덕’이라고 불렀다. 바닷가에 있는 언덕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송림 언덕에 올라 흙을 파 보면 조개 등 바다에서 서식했던 생물이 나 자갈들이 퇴적되어 흙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부경대학교 일대가 바다였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부경대학교 내에 작은 송림으로 된 언덕이 있다. 이곳도 흙을 파보면 모래, 흙, 조개, 자갈 등으로 퇴적되어 있다. 전형적인 갯번덕이라고 할 수 있다.

8) 용소서당

금산 김씨의 종손인 김준에 의하면 용소서당은 금산 김씨 김신의 25세손인 김재일(金在-一)이 1875년경에 대연동 일대의 청소년의 글공부를 위하여 대연 3동에 서당을 지을 터를 제공하였다. 이곳에 서당을 지어



갯번덕인 대학 내의 송림 <출처 : 공기화>

동래의 한학자 송문섭(宋文燮)을 훈장으로 모셔서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송학사가 작고한 후에 기장에서 모신 김진성(金鎭晟)을 훈장으로 모셨던 유명한 서당이었다.

서당 터를 제공하고 운영되도록 도왔던 김재일 공이 작고하였을 때 이 서당을 거처한 사람들이 그의 은덕을 기리고자 비석을 세웠다. 그 후에 후손들은 그를 ‘비석 할배’라고 불렀다.

이 서당은 6.25전쟁 후에 대연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하였을 때 임시 교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용소마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9) 장사소나무

남구 대연3동 561-12번지에는 오래전부터 '세정터'라고 부르던 곳에 노거수 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는 수령이 150년쯤 된다고 하는데, 90년 전에도 지금처럼 큰 나무였다고 한다. 이 점을 유추하면 200년이 넘는 이 소나무는 현재 대연3동 용소마을의 수호신인 당목(堂木)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장사소나무'라고 부른다.



장사소나무 <출처: 공기화>

용소마을의 당집은 원래 대연4동의 청자아파트 자리에 있었는데,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헐렸다. 그 마을에 용소마을의 당이 있다고 하여 마을의 이름을 당곡(堂谷)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용소마을의 주민들은 정월 초 3일에 당곡의 당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당목에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정월 초사흘에 용소마을의 주민들이 다 모여 마을의 당산목인 장사소나무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마을의 복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의 제주가 되면 심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남의 집 상가에도 가지 않았으며, 정월 초사흘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자정경에 당곡에 있는 당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03 대연4동의 마을과 명소

1) 석포마을



석산재 <출처: 공기화>

대연4동의 석포마을은 석포목장과 관련된 흔적은 볼 수 없다. 그 곳은 임진왜란 후인 500여 년 전 동래성의 수문장이었던 정춘세(鄭春世)가 대연동에 와서 대연3동의 용소마을에 잠시 거주하다가 석포마을에 입향하여 그 마을은 동래 정씨와 사위 집안인 경주 김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이 마을은 1740년에 발간된 동래부지에 “석포리는 관문에서 27리 거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마을 앞에 송림이 우거진 곳에 활 쏘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도로가 나면서 많이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민가 한가운데에 동래정씨석포문중(東萊鄭氏石浦門中)의 재실인 석산재(石山齋)가 세워져 있다.

이 마을을 석포라고 하는 것은 석포목장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거나 석포목장의 관리인의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혹자는 이곳에 70 ~ 80년 전만 하더라도 배가 마을에 닿았다고 하나 전혀 근거 없다. 비사등이라는 곳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 세기 전에 이 근처가 바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당곡마을

당곡마을은 유엔기념공원 인근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대연동에서 못골마을, 용소마을, 석포마을 다음으로 4번째로 큰 마을이었다. 이 마을과 별로 구분되지 않은 마을로 갯골이 있다. 동명오거리부터 당곡 사이에 있었던 갯골은 용당동이다. 이곳의 자제들은 석포초등학교나 용당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대연초등학교에 다녔다.

이 마을이 당곡이 된 연유는 대연3동의 용소마을의 당이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어 당곡(堂谷)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은 남평 문씨, 달성 서씨, 경주 최씨의 집성촌이었다.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대연동에 유엔기념공원과 부산문화회관을 조성하면서 마을 대부분이 사라지고 주민들도 뿔뿔이 흩어져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엔기념공원을 조성할 때 이곳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마을의 뒷산은 인민군 매장지, 앞쪽은 유엔군 가매장지여서 시신을 부검 후에 별에 말렸다가 매장해야 하므로 이 때에 나는 고약한 냄새로 곤혹을 치루었다. 유엔 묘지를 조성한 후에 지금도 유엔기념공원 때문에 고도 제한받아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3) 석포목장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에 “동래현 남쪽의 석포농장에 말이 232마리, 절영도에 목우 276마리, 오해야항목장에 793마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래현 목장조에 “석포에는 나라에서 기르는 말 419마리 방목했다.”고 했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동래현의 남쪽 23리에 있는 석포에 석포목장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東萊府志)에는 석포목장이 폐지되었다고 하며, 목장성이 기록되어 있다.

“목장성은 3곳에 있는데, 하나는 엄광산 산록에서 부산 범천산까지 길이가 15리요, 하나는 옛 다대 강변에서 석성산 산록까지의 길이는 10리요, 하나는 황령산 산록에서 남천강변까지 길이 15리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

조선조 초기부터 있었던 국마장인 석포목장은 황령산에서 남천동과 용호동에 이르는 일대로 추정된다. 그곳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폐 목장이 되고 토성으로 된 마성이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 토성은 지금부터 60년만 하더라도 대연동과 감만동의 산에 조금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보기조차 힘들다.

4) 유엔참전기념탑

이 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명령을 (중략) 로터리에 세운 기념탑이다.

이 기념탑은 비스듬한 직각기둥 위에 16명의 유엔군들이 제각기 다른 군복

과 자세로 둘러서 있다. 탑 둘레에 전투 참전국 16개국 국기, 태극기와 유엔기를 포함하여 18개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기념탑은 비스듬한 직각기둥, 수직으로 선 직각기둥과 청동 등신대 군인 부조, 지구의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탑신의 동쪽 면에 '유엔기념탑'이라 새기고, 서쪽 면에 '대한민국은 1950년 6.25전쟁 때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정의의 십자군들이 참전해 준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기 위해 여기에 이 탑을 세우다.'라고 적혀 있다.

이 조각품은 유엔교차로에 있어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문화회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길가에 잘 단장되어있는 명소이다.



유엔참전기념탑 <출처: 공기화>

5) 유엔기념공원

(1) 유엔기념공원(재한유엔기념공원) : 등록문화재359호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이곳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세계평화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다.

1951년 1월부터 이 땅에서 죽은 용사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하였다. 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을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고,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회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이곳의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결의문 제 977(X)호를 채택하였다. 유엔기념공원은 현충원과 달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영구 기증하고 국제연합에서는 영구 관리를 결의함으로써 지금은 매장된 전사자의 출신 국가 11개국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 1974.02.16. 관리업무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에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로 위임.
- 2007.10.24. 근대문화재 등록(등록문화재 제359호)
- 2001.03.30. '재한유엔기념묘지(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재한유엔기념공원 명칭을 변경하였다.

재한유엔기념묘지(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의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1년 3월 30일 한국어 명칭을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하였다.

• 한국전쟁의 지원국

- ① 전투지원(16개국) :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그리스, 타이,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 ② 의료지원(6개국) :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서독)
- ③ 물자지원(39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서독,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멕시코, 버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아이티,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중화민국, 칠레,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교황청
- ④ 물자지원 의사 표명(3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볼리비아 등

• **유해 안장 현황 - 총 11개국 2,300여 명**

한국 36명, 호주 281명, 캐나다 378명, 프랑스 44명, 네덜란드 117명, 뉴질랜드 34명, 노르웨이 1명, 남아공 11명, 터키 462명, 영국 885명, 미국 36명, 기타 15명.

• **11개국의 구역에는 묘가 없다.**

벨기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필리핀, 태국, 이탈리아, 덴마크, 인도, 스웨덴 등 11개국의 구역에는 실제 묘가 없다.

- 36,000여 명 또는 45,000명의 전사자가 생긴 미국의 경우에는 6·25 전쟁 당시의 전사자가 아니라 전후 사망자이다.

• **‘부산을 향하여 Turn Toward Busan’**

2012년 11월 11일.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등 세계 55개국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오전 11시에 맞춰 부산을 향해 일제히 묵념했다. 부산에 묻힌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라는 추모행사를 동시에 가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영 연방국가들의 현충일인 11월 11일 11시에 전 세계는 부산을 향해 6년째 머리를 숙이고 있다.

(2) 유엔기념공원 정문

한국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1922-1988)의 설계로 1966년 11월 30일 부산시민들에 의해 봉납되었다. 이곳의 정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기와집을 콘크리트로 만든 대문이다. 기둥의 단면은 4개 꽃잎으로 된 청자 모양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지붕 물받이는 주전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 가운데는 하늘이 보이게끔 뚫려 있다. 이는 이곳과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유엔기념공원 정문 <출처: 공기화>

(3) 추모관

이곳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기타 종교 양식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은 주로 유엔기념공원을 관광할 때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공간이 되어 있다.



추모관 <출처: 공기화>

추모관은 1964년 8월 21일에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인 김중

업 씨가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설계한 것이다. 이 건물의 첫인상은 아메리칸인디언의 주거지를 닮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건물은 이를 지탱하고 있는 여섯 개의 노출된 들보와 추상성, 영원성을 강조하는 기하학적인 삼각 형태가 특징이다. 추모관 대들보에는 16개 선이 보인다. 유엔군으로 전투에 참전했던 16개 국가를 기념한 것이다. 창문마다 스테인글라스로 그려져 있다. 갈등, 전쟁, 화해, 평화 등의 주제로 되어 있다.

(4) 중앙상징구역과 주 묘역

중앙상징구역은 유엔기를 앞에 두고 16개 참전국과 의료 지원한 6개 국가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태극기가 보이는데 이는 유엔군에 포함된 한국인 카추사의 군인 36개 묘가 있다.

다른 나라의 묘소는 작은 동판으로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묘소는 한국의 전형적인 비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병사들은 대부분 창녕과 남지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들 전투는 인민군이 낙동강을 잠시 넘어와서 매우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이다.



유엔기념공원의 중앙상징구역 (출처 : 공기화)

한국인 카추사 병사들은 당시 고학력자로 교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 전사자 중에 김희갑이라는 분도 있는데 코미디언 김희갑과는 다른 분이다. 이곳의 유엔기 앞에서 헌화하는 등 공식행사를 하는 구역이다. 그 아래의 주 묘역에는 각국 병사들이 묻혀 있는 주 묘역이 있다.

이곳의 아침과 저녁에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에 의해 트럼펫 곡에 맞춰서 유엔기의 게양식과 하향식을 한다. 하향식을 할 때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에 산책하던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서 모자를 벗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거나 묵념을 하는 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병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우리나라 자유 통일을 위한 염원을 표하는 예이다.

(5) 도은트 수로(Daunt 水路)

유엔기념공원의 중앙에는 길이 110m, 폭 0.7m의 수로가 있다. 바로 J. P. Daunt(도은트) 수로이다. 1951년 11월 6일 17세에 전사한 호주군의 도은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최연소 전사자이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낮선 땅에 도착하여 전투를 치르다가 산화하였다. 도은트, 그는 고등학생 나이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다가 산화하였다. 유엔기념공원의 참배객이라고 하면 이 수로를 찾아와 머리를 숙여야 하리라.



도은트 수로 (출처 : 공기화)

이 수로에는 금빛 나는 금붕어가 노닐고 있다. 참 평화롭게 떼를 지어 다니고 있다. 이곳은 전 연령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다.

(6) 유엔군전몰장병추모비

한국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에 전사한 4만여 명 유엔군 장병들의 이름을 모두 오석(烏石)에 새긴 추모 조형물이다. 이 조성의 기본계획은 임채운, 실시설계는 조민석이 했다.



유엔군전몰장병추모비 <출처: 공기화>

제단 뒤에 5미터 높이의 ‘침묵의 벽’이 전체 시설물의 배경 역할을 하여 내부 공간이 전몰장병들의 공간임을 강조한다.



이해인 수녀의 헌시 <출처: 공기화>

전몰장병의 추모비에 ‘한국전 유엔군 전몰용사를 영구히 추모하며’라는 이해인 수녀의 헌시(獻詩)가 있다.

우리의 가슴에 님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에 님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

모든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벽은 반사 연못 안에 핀 연꽃과 전사자의 철모를 형상화한 조각이 현재의 푸른 하늘과 전쟁의 참혹함, 그들의 희생정신이 평화를 가져왔음을 상징한다. 반사 연못 안에 있는 기둥 위에 꺼지지 않는 불꽃은 그들의 명예와 희생,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상징한다.

(7) 유엔군위령탑과 제2자료실

유엔군위령탑은 1978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쟁 때에 산화했던 전몰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한 위령비이다. 이 위령비의 정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이라고 쓴 친필 휘호가 부조되어 있다.



유엔군 위령탑 <출처: 공기화>



위령탑 제2자료실에는 원래 유엔군 전사자의 명부가 소장되어 있었으나 2007년 9월에 기념관으로 주로 영국군의 관련 사진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그곳에서 추모 시를 볼 수 있다. 그 시는 영국군 전사자인 서머(D. Sumner)의 쌍둥이 형제인 서머(Mr. A. Sumner)가 쓴 시이다.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 중 한 사람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여 지금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그의 마지막 연에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잊혀가지만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

My brother twin/ Age twenty one/ Was killed in action/ By enemy gun//
Deep in jungle/ Out in Korea/ Against the communist/ who were politically feared//
While on patrol/ He marched/ Through hell/ And gave his life/ For the freedom world//
Now rest in peace/ In a foreign land/ Having served his county/ He's a forgotten man//
But Derek/ We'll not forget/

나의 쌍둥이 형제는/스무살 나이에/적들의 총에 죽었다네//
 한국의 깊은 숲속에서/무시무시한 공산당에 맞서/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옥으로 가는 행진을 하며/그의 목숨을 바쳤다네//
 이제 미국땅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네/그의 나라의 돌봄을 받으면서/잊혀진 사람이 되어가네//
 그러나 Derek./우리는 날 결코 잊지 않을 거야

(8) 무명용사의 길



무명용사의 길 <출처: 공기화>

유엔기념공원은 2008년 1월 유엔군위령탑에서 남쪽 방향 녹지지역에 11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수로(水路) 두 개가 나란히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다. '무명용사의 길'이다. 수로 뒤편에 11개의 분수대가 설치됐으며, 주변에는 양쪽으로 11그루 소나무가 심겨 있다. 이곳에 심어 있는 소나무 22그루는 유엔군 전투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무명용사들이 많다. 언제 그들도 양지바른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꽃 피우는 날에 그들이 성큼성큼 걸어서 올까...

(9) 유엔기념공원의 볼거리

유엔기념공원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이곳에 심겨 있는 식물이나 꽃을 계절을 잘만 찾으면 기쁘게 만날 수 있다.

- 홍매화 2월 10일경 추위가 남아 있는 날에 홍매화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붉은 꽃이 핀다. 원래 두 그루 있었으나 현재 한 그루 더 늘었다. 꽃이 피는 계절이면 이곳의 관계자들은 포토 존을 두고 있다. 이곳의 꽃은 봄을 맞는 부산의 영춘화(迎春化)라고 할 수 있다.
- 목련의 길 3월에 중앙상징구역의 뒤의 도로에 흰 목련과 자목련이 줄지어 있다. 목련의 길이라고 해야겠다. 자목련은 마치 불꽃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다.
- 수양벚꽃 유엔기념공원에는 유난히 수양벚꽃이 많이 심겨 있다. 특히 묘소가 없는 도넛 수로의 아래 도로가에 많이 심겨져 있다. 가장 아름다운 수양벚꽃은 도넛 수로 아래의 왼쪽 뜰에 있다. 흰꽃이 폭포수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 메타쉬카이어 도넛 수로 아래의 오른쪽 도로에 메타쉬카이어가 도열하고 있다. 4월이 되면 이곳의 숲은 신록이 어리면 신비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이 숲의 길은 가장 아름답다.
- 겹벚꽃 4월 중순 이후에 유엔기념공원에는 겹벚꽃이 피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유엔군전물장병추모비 바로 위에 들과 중앙상징구역의 왼쪽 도로 옆에서 아름답게 피고 있다. 3월 초까지 홍매화 사진을 찍던 추모객들은 겹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 장미 유엔기념공원의 장미는 주 묘소의 병사들의 묘지석 옆에 피고 있다. 4월 말부터 여름 내내 이곳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다. 추모객들은 장미를 보려고 장병들의 묘소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 배롱나무 여름이 되면 유엔기념공원의 중앙상징구역의 왼편에는 아주 큰 배롱나무가 두 그루 있다.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이 다가도록 꽃이 핀다. '나무 백일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작은 가지 하나를 간질어도 큰 가지까지 흔들린다. 그야말로 백일 동안 꽃이 피는 간지름나무다.

- 무궁화 도은트 수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올라오면 주요역 옆에는 아주 큰 무궁화 나무가 있다. 흰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여름 이후에 전지를 너무 한 것 때문에 가지 사이에 무궁화꽃을 볼 수 있다.

6) 유엔기념공원 밖의 공원

(1) 대연수목원

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연수목원이 있다. 그곳은 유엔기념공원을 감싸며 ㄷ자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기념공원 주차장 아래로 내려가면 무궁화 화원, 히브 화원, 장미 화원, 매화와 자두나무 등 유실수원, 낙엽교목원, 상록활엽수원, 죽림원 등 774종의 수목이 자라고 있다.

대연수목원 가운데에 정자와 물레방아가 있다. 그곳의 물이 개울이 있어 아래의 수련이 있는 연못까지 흐르고 있다. 이 개울가에 초여름부터 꽃창포가 꽃이 피고 있다. 열대식물이 자라는 대형온실이 있다. 수목원 사이에 포도, 다래 등 냉쿨식물이 만든 터널이 있다.

평화공원의 아래쪽에는 각종 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그 아래서 휴식할 수 있다. 평화공원과 조각공원 사이에 넓은 백합나무 숲이 있으며, 중간에 맨발로 황톳길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2) 평화공원

평화공원은 2005년 AEP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기념공원 남쪽에 조성되었다. 상징물이 있는 광장과 잔디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남구의 UN 평화축제를 하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국화축제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잔디밭 둘레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걷기 운동하는 곳이다.

산책로 용당쪽 모서리의 작은 공연장이 있었던 곳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워트컴 장군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1953년 한국전쟁 당시 미 제2군수사령관으로 부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부산역대화재가 발생하여 30,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상부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창고를 열어 이재민을 도왔다. 그것으로 미의회에 소환되었을 때에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전역 후에도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하여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다. 그가 한국에 끼친 은혜에 보답하고자 평화공원에 시민들의 모금으로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이곳은 새벽부터 산책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 부부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걷는 젊은 부부가 걷는 모습은 아름답다.

(3) 조각공원

유엔기념공원을 국제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던 해에 특별기획 유엔기념공원 국제 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한 참전 22개국 조각가 34명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2001년에 부산시립박물관 옆에 조성되었다.

이곳에 총 34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쪽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길가에 조각 작품이 제자리에서 사람들을 맞고 있다. 이상한 의자가 있는가 하면, 징검다리과 같은 작품이 있고, 소년 소녀가 평화롭게 앉아 있는 작품, 소리라는 작품은 공기 중 소리의 파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곳은 자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갤러리라 하고 싶다. 그곳에서 유엔기념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입구에 엄청나게 큰 매화나무가 있어 자유, 평화와 인류의 사랑과 같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한다.

이들 작품 속에 유엔군참전국도 아닌 일본인의 작품도 있다. 그는 프랑스로 귀화하여 그곳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프랑스 작가이기 때문이다.

04 대연5동의 마을과 명소

1) 못골마을



1952년의 못골마을 <출처 :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못골마을은 대연동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며, 가장 큰 마을이다. 큰 연못인 못골연못이 있었으며,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위쪽에 위치하여 있었다. 그 연못의 옛날의 명칭은 생천언(生川堰)이라고 했으며, 이 마을은 고려시대 때는 생천향(生川鄉)이라고 하였다.

동래부지 제언조에 의하면

生川堰 在府南二十里 長一百八十一尺 廣一百二十五尺(생천언은 동래부에서 남쪽으로 이십리에 있으며, 길이는 181척이고, 폭은 125척이다.)

이것으로 보아 생천언 즉 못골연못이 있는 못골마을은 동래부청(東萊府廳)에서 20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큰 연못이 있다고 하여 지곡(池谷)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름은 1904년에 편찬한 동래군 가호안에 지곡동(池谷洞)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못골연못은 동래군에서 자연 연못으로 가장 컸으므로 이곳 지역의 명칭을 대연리(大淵里)라고 하였다. 큰 연못이라는 못골연못의 물로 농사를 지었던 못골마을, 용소마을, 석포마을, 당곡마을은 논농사를 많이 지었던 대연동의 주요 마을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다.

이 마을은 1965년부터 토지구획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상전벽해된 것으로 발전되어 큰 저택을 짓고 사는 부자가 많아 '도둑촌'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못골마을은 대연출장소, 대연초등학교, 대연교회가 들어서는 등 이곳이 남구의 행정, 교육,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거기에서 1953년에 못골시장이 서면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금은 대연고개가 낮춰지면서 국도가 직선으로 변모되면서 예전의 국도였던 도로변이 시장으로 변모되어 대연골목시장이라고 하여 지금도 상업적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1980년 못골골목시장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P360, (부산남구청, 2014 刊)>

이 마을은 1459년에 죽산 박씨의 시조인 박기오(朴奇悟)의 20세손인 박수(朴燧)가 금성대군의 난에 화를 피하여 못골마을에 닿아 그 후손들이 뿌리를 내렸다. 그 밖의 못골마을의 성씨로는 여은 송씨, 은진 송씨, 남평 문씨, 곡부 공씨, 울산 박씨, 언양 김씨 등이다.

2) 대연출장소

부산 남구는 1740년에 동래부 남촌면(南村面)이었다. 1942년에 부산시 부산부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해방 후 1953년 9월 10일에 부산진출장소에서 분리되어 부산시 대연출장소에 속하였다. 1957년 1월 1일에 남구는 부산시 직할 출장소로 승격되어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가 되었다.



대연출장소 자리에 남구노인복지관이 되어 있다. <출처: 공기화>

1963년 1월 1일에 남구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가 되었고, 1973년 3월 10일에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가 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에 대연출장소가 폐지되고 부산진구 문현동을 포함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청으로 승격하였다.

1957년에 지금의 대연우체국 위의 풀밭에 단층 건물로 된 대연출장소를 건립하였다. 이곳은 남구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곳에서 남구의 서무, 세무, 산업, 산림 등 행정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거 관

리까지 하였다.

1975년 10월 1일에 대연출장소 자리에서 남구청으로 승격되었다. 새로 세운 남구청은 남천동의 지금의 수영구청이다. 그리고 남천동이 수영구청에 속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구청 쪽으로 이전하여 왔다.

대연출장소는 지금 리모델링되어 남구 노인복지관으로 변모되어 있다. 그 앞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1957년에 심어진 것이다.

3) 대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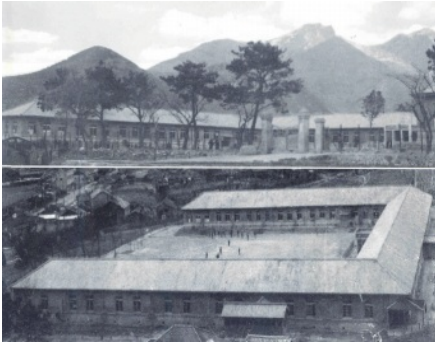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남구 사람들은 마을의 서당이나 향교에 가서 공부하였다. 남구의 대표적인 서당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대연3동에 용소서당(대연3동 용소경로당), 감만동에 석남서당이 섰다. 용호동과 용당동 등에도 마을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초등교육기관으로는 1919년에 감만동에 배영의숙이 섰고, 1922년에 못골에 대연강습회가, 1925년에 용호동에 동명학원이 섰다. 1929년에 남구 주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자고 하여 대연강습회와 동명학원은 합쳐져 6년제 사립용연보통학교가 대연동 번지에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은 송진우이다.

사립용연보통학교는 8회를 졸업하였다. 일본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을 만들려고 초등학생부터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일본국어, 국사를 가르치고 일본어만 말하게 하려고 1937년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시켰다.

대연보통학교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가 있는 성지보통학교 분교가 되었다가 대연심상소학교가 되었다. 1954년에 산성교회 인근에 있었던 학교에서 지금의 학교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대연초등학교 자리는 원래 1915년에 세워진 일본인 자제들을 교육했던 용남심상소학교였다. 대연동이 동래군에서 부산

부에 속하게 되자 이 학교는 부산제9심상소학교가 되었다. 해방 후 1952년에 방화로 소실되고, 폐허로 남아 있다가 1954년 11월에 대연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2022년 11월에 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65년 화재 나기 전의 대연초등학교 <출처: 공기화>



현재의 대연초등학교 <출처: 공기화>

4) 못골시장

남구 주민들은 험한 대연고개를 넘어 부산진시장에 갔다. 해방과 한국전쟁 후 인구가 많아지고 피란민들의 생필품 수요의 급증으로 길가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남구 주민의 회의를 거쳐 1953년 봄에 못골에 '못골시장'이라는 공설 시장이 개설하였다.

이곳에는 포목점, 문방구, 식당, 신발점 등의 상점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 활성화되었으나, 1968년 도로가 대연고개에서부터 남부산 농협까지 직선화됨으로 기존의 국도의 양옆은 시장



못골시장 바로 옆에 있었던 마차 골목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이 되었다. 이 시장을 '못골골목시장'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존의 공설시장은 위축되었다.

1969년에 대연동 청과조합 근처에 3층의 건물의 못골시장에 비해 현대화된 상점으로 구성된 '대연시장'을 개설하였다. 지금은 못골골목시장 외에 시장이 위축되었다. 못골골목시장은 2000년 전까지 번창하여 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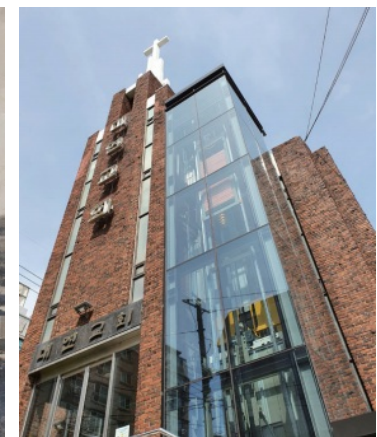
처음에 개설된 못골시장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되지 않고 있다. 1층은 거의 황폐화되어 낡은 공간으로 남아 있다.

5) 대연교회

1900년 초기부터 대연동의 기독교인들은 좌천동에 있는 부산진교회에 다녔다. 대연동에서 대연고개를 넘어 노하다리를 건너 부산진교회에 갔다. 우기에 동천이 범람하여 노하다리를 건너기가 어려워 예배 참석이 어려웠다. 1907년에 대연동의 교인들이 못골의 가정집에서 모이고, 1909년에 대연동 1403번지의 초가를 구입하여 교회당을 지었다.



1930년대 대연교회 <출처: 대연교회 소장>



현재의 대연교회 <출처: 공기화>

대연교회는 118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서 부산진에서 송정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이 교회는 1920년부터 애국지사 이창섭 씨가 야학을 시작하여 대연강습회가 되었다. 1930년대 악대부가 있었다. 1939년에 오르간을 상애원 감만교회에서 구입하여 김성호 집사의 할머니가 옮겨왔다. 이 오르간은 100년 이상된 것으로 대연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6) 못골연못

못골의 큰 연못을 동래부지 등에는 생천언(生川堰)이라고 불렀다. 생천언(生川堰)의 축조방식이나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는 수리조합이 조직되어 옛날부터 있던 못의 위쪽에 둑을 쌓아 다시 새로운 못을 만들었다. 옛 연못이 있을 당시에 이곳을 답사해서 조사했던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의 편저자인 도꼬오(都甲玄卿)는 “이 연못은 축조의 양식과 수법으로 보아 틀림없는 신라시대의 옛 연못(舊池)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을 보아 못골은 신라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못 둑에서 본 못골연못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부산남구청. 2014년) 97페이지 (사진제공 : 대연교회))

못골에는 원래 연못이 3개 있었는데, 1930년 이전의 연못이었던 아래 연못(生川堰)과 1930년에 중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완공되었다. 이 연못의 물은 부경대학교 앞에 이르는 해안까지 제방을 쌓아 가물 때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못의 수원을 이용하여 대연동 일대 약 5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논을 경작하였다.

동천고등학교 아래에 있었던 못골의 연못은 대연동 주민들에게 농사를 위한 수원지, 빨래터로 이용되었고, 이곳의 연못의 뚝은 한국전쟁 시기에는 대연초등학교의 야외교실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 초등학교의 소풍 장소였다. 겨울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 썰매장으로 이용되었다. 이 연못은 1965년부터 시행된 대연동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으로 1968년에 완전히 메워져 주택가로 변모되었다.

7) 박천추 공(公)과 주산재(죽산 박씨 재실)

인목재 박천추(忍默齋 朴天樞, 1569 ~ 1633) 공은 조선조 초기에 화를 피하여 대연동의 못골마을에 입향한 죽산 박 씨 중시조 박수(朴綏)의 고손자가 된다. 공은 어려서부터 한강 정구(寒岡 鄭逵) 선생의 문하



개발되기 전의 세연고등학교 앞 (출처 : 박인득)

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학문을 정진하면서 열심히 무예를 익혔다.

그는 “대장부로 태어나서 문무를 겸하지 않으면 국난을 당하였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며 경남 양산군 동면으로 이주한 후에도 처남 문택룡과

함께 활쏘기와 칼을 연마하였다. 공이 24살 되던 1592년에 동래향교의 교생으로 공부하던 중에 임진왜란을 맞아 동래성 전투에서 처남 문택룡과 노복들을 이끌고 송상현 부사를 도와 분전하였다. 그는 동래성이 함락된 이후에 의병을 일으켜 적의 수송로를 차단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는 소산역(蘇山驛)에 집결하여 유격활동, 의병 활동 등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그 공으로 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 되었으며, 후에 판관의 증직이 내렸다. 후에 박천주 공은 1991년 충렬사에 합사하게 되었으며 충렬사(본전) 봉안신위(奉安神位)로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동래충렬사에 배향하게 되었다.

세연고등학교 안에 주산재(죽산 박씨의 재실)에 세워진 선무원종공신 인목재 박공비(宣武原從功臣 忍默齋 朴公 碑)라고 쓰진 비가 있다. 주산재 건물 뒤편의 중앙에 공의 묘소가 있고, 그 서편에는 선대들의 단소 사 위(壇所 四位)와 동편에는 후손들의 단소 삼 위(壇所 三位)가 있다. 세연고등학교도 인목재 후손들에 의해 세워졌다. 매년 10월 초정(初丁)에 죽산 박씨 문중 전체가 모여 묘제를 올리고 있다.

주산재 뒤로 하여 산길을 오르면 못골마을의 당산(堂山)이 있다.



박천주 공(公)의 비석과 주산재 <출처: 공기화>



가운데 무덤이 박천주 공의 묘소 <출처: 공기화>

05 대연6동의 마을과 명소

1) 구 부산공업중학교와 미 제5공군사령부

(1) 부산공업중학교

남구청과 그 옆의 동원로얄아파트와 오양양지아파트 자리는 1924년 보수동에서 세워진 부산기술보습학교가 1940년에 대연동으로 이주한 부산공업중학교가 세워진 장소였다. 이 학교는 자연과학, 공업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그 한 해 뒤에 대연3동에 세워진 수산전문학교와 더불어 높게 세워진 본관 건물, 실습관, 생활관 등이 있었다. 학교는 그해 가을에 문현동 동천변으로 이전하였는데 지금의 성동중학교 자리다.

육군병참학교가 떠나고 폐허가 되었던 이곳에 1963년에 부산공업중학교의 후신인 5년제(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년)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부산공업고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에 운크라(UNKRA)라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우수한 실습기자재가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었다.

부산공업고등학교는 주야간이 있었는데 주간부가 승격하여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가 되고 야간부가 승격하여 부산공업고등학교가 되었다.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2년제 부산공업전문대학이 되면서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 부산공업전문대학이 되었다가, 1986년에는 부산공업대학이 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수산대학교와 합하여 부경대학교가 되어 발전하고 있다.

(2) 한국전쟁 후 군부대



1952년 미군부대에 징발당한 부산공업중학교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공업중학교는 유엔군에게 징발되어 미 제5공군사령부와 미8군 산하의 보충부대가 주둔하였다. 김일성은 인민군에게 8월 15일 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독려했으나 1950년 8월 9일까지 북한전투기 108대를 격추되었다. 북한군은 공군의 궤멸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 산하 미공군은 북한군 전투기를 격추하여 북한의 보급선을 차단하여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미군들이 점유하고 있을 당시 큰 화재가 나서 교사, 공업실습관, 생활관 등은 불탔고 겨우 병사들의 식당이었던 강당만 남아 있었다. 후에 육군병참학교가 주둔하였다.

육군병참학교 등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이전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운크라(UNKRA)의 임원들이 방문했다. 학부모들이 부산공업중학교 옛 부지에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화재로 학교가 전소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5년제 공업고등전문학교를 설립이 추진되었다.

지금 그곳에는 남구청, 남구의회, 남부교육구청, 남구보건소, 동원로얄아파트 등으로 변화하였다.

2) 방송국마을

1920년경 일제는 전파감시탑을 세우려고 대연동 일대를 조사하여 지금의 남구청 뒤쪽의 연포초등학교 자리에 전파감시탑이 세워졌다. 이곳을 관리하는 2개 동의 집도 있었다. 높은 철제 탑은 밤이 되면 붉은 등이 반짝였다. 방송국에 가 본 일이 없는 주민들은 이곳이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여 '방송국'이라고 불렀다.

이곳 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구청이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문현동 안동네에 새로 조성한 군부대로 가기 위한 길을 내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쪽으로 길이 생기자 피란민 등이 전파감시탑 맞은편 쪽으로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였다.



1952년의 제5공군사령부 <출처: 공기화>



지금의 '남구청 전경' <출처: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걸을 느끼다』 287페이지 (부산남구청 2014 刊)>

1952년에 대연교회에서 분리된 피란민 교인들과 그 인근에 거주하였던 교인들이 전파감시탑의 맞은편에 교회를 세웠다. 처음에는 북한교회, 신흥교회라고 하다가 길 건너편에 교회를 신축하여 대연제일교회라고 하였다. 해방 후 그 지역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한국전쟁 후에 집이 많이 들어섰다. 그리고 1956년경부터 이곳에 청소년 보호시설인 신흥학원이 있었다. 방송국마을은 전체가 롯데캐슬아파트와 연포초등학교가 들어서 그 마을은 사라졌다.

3) 작은 못

작은못은 황령산의 서쪽에서 고동골의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물을 진남로 중앙고등학교 아래 더 마트 앞의 로터리 아래에 담았던 연못이었다. 이 명칭은 못골의 큰 연못과 비교하여 작다고 하여 작은 못이라고 했다. 남구청이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문현동 안동네에 새로 조성한 군부대로 가기 위한 길을 내면서 작은 못 쪽에 길을 내면서 연못을 매립했다.



더 마트 앞 교차로 (작은 못이 있었던 곳이다)
〈출처: 공기화〉



1952년 대연동 작은못골과 아래 논들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김한근〉

아래의 논이 군사 용도로 징발당하여 연못이 필요하지 않아 메웠고 그곳에 도로가 생겼다. 논이었던 곳이 군부대가 되어 그곳을 한국전쟁 중에 군부대,

현병대, 임시포로수용소 등으로 이용되다가 오양양지아파트가 되었다가 지금 새로운 아파트 공사 중에 있다.

대연고개의 아래에 작은못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 대연고개를 오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롯데캐슬아파트 옆으로 오르는 입구에 해당되는 곳의 일대이다. 그곳의 이름이 왜 작은못골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연유는 미스터리이다. 그곳엔 못이 조성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곳이었다. 못이 없는데도 왜 작은못골이라고 했을까? 아마 작은 못 근처 살았던 사람들이 집이 뜯기면서 대연고개의 아래쪽에 집을 지어 살면서 마을의 이름을 '작은못골'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황령산의 다른 이름 '반보기산'

남구 지역 중 용호동이나 용당동, 감만동 등은 외진 곳이었기에 '출가의외인' 며느리들의 친정 그리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밤마다 베갯잇이 흥건하도록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 지역 며느리들은 시댁 어른의 용인 아래 친정 식구를 볼 수 있는 날이 생겨났다고 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며느리의 날'이었다.

이 '며느리의 날'은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한식날 아니면 초파일이었다. 며느리들이 친정 식구를 볼 수 있는 장소는 황령산 봉수대 근방이었다. 특히 한식날은 주인의 허락을 받은 며슴들도 하루 휴가를 받아 황령산 봉수대로 놀러왔다. 자연스럽게 이날은 옛장수, 떡장수, 방물장수 등이 모여들었고, 한편에선 풍물도 치다 보니 산정은 흥겨운 놀이마당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날 사하구나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사람들은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해서 험하고 울창한 여러 군데 고갯길을 넘어오느라 하루 전날 집을 나서서 밤새 황령산까지 걸어왔다고 한다. 며느리들 역시 밤새 뜯눈으로 보낸 뒷날,

아침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시댁 어른 눈치를 보며 종종걸음으로 황령산을 향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 보따리부터 풀었다고 한다.

그러나 야속한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해거름이 가까워지면 친정엄마는 눈물짓는 딸을 부둥켜안고 같이 울었다. 이 별리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점차 며느리들 사이에서 가사로 전해졌는데 “성아 성아 우리 성아/시집살이 어떻더노/시집살이 말도 마라/모시적삼 속적삼이 눈물젖어 다 썩었다”라는 내용이 었다.¹⁾

이른바 황령산의 또 다른 이름인 ‘반보기산’이라는 이름에는 고된 시집살이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황령산 봉수대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곁을 느끼다』(부산남구청, 2014 권) 50페이지>

1) 남구 향토사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곁을 느끼다』(부산남구청, 2014 권) 211페이지에서 ‘반보기산의 노래’ 옮김.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

대연동 · 문현동



문현동

| 집필 | 곽태욱 · 소설가·향토사연구가

문현동의 유래



황령산에서 바라본 남구의 전경. 문현동은 주로 황령산 서쪽에 분포
<출처: 『남구 구정40년(부산남구청, 2015년, 내표지1, 2면)』>



2014년 문현로터리 <출처: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낀다』(부산남구청, 2014 권) 29페이지 하단 사진>

문현동은 현재 문현1, 2, 3, 4동으로 편성돼 있다. 남구청을 중심으로 서쪽의 관문이며 문현로터리는 사통팔달의 중심이다. 동쪽은 대연동에 접하고, 서쪽은 동천을 경계로 동구 범일동을 접하며, 남쪽은 남향과 북향을 바라보는 우암동에 접하고, 북쪽은 황령터널을 경계로 부산진구 전포동에 접하고 있다.

문현1동은 황령산(427m) 서편 산자락 일대에 위치해 있다. 옛날부터 ‘문안’ 혹은 ‘문현 안동네’ 또는 ‘고동골’로도 불린다. 문현2동은 황령산 자락의 낙후된 거주지와는 달리 전포대로 건너편에는 대형할인매장 이마트와 문현금융단지 63층 BIFC(부산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루고 있다.

문현3동은 문현동을 통틀어 문현교차로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서 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진출입 램프가 있으며, 남구의 관문이자 교통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다. 문현교차로 주변에는 다른 동에 비하여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편이다.

문현4동은 문현교차로 남쪽 지역 일부와 동천삼거리 일대 지역까지 이른다. 문현동을 통틀어 옛이야기를 가장 많이 안고 있다. 동천 끝단인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공장을 지나 동천삼거리 부두교에서 문현동이 끝나고 곧 우암동이 시작된다.

1) 문현동 동 이름의 유래

문현(門峴)은 글자 그대로 ‘문(門) + 고개 현(峴)’으로 이루어졌다. 문은 안팎을 드나들 때 여담을 수 있고 경계도 짓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문을 열어야 고개도 넘을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문현’이라는 동 이름은 문현1동의 ‘문고개’와 문현4동의 ‘지계골고개’ 두 가지 설이 있다.

(1) 문현1동의 ‘문고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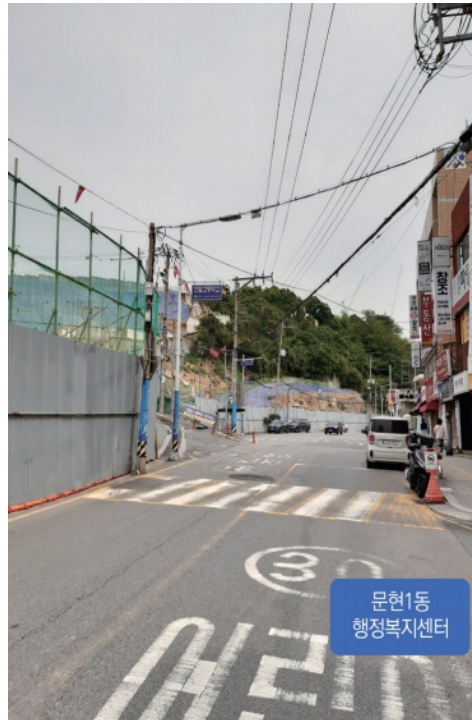
이 설은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에 살던 영산 신씨(辛氏) 형제가 ‘난(亂)’을 피해 부산 남구의 황령산 자락에 정착해 전답을 일구며 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난’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민저항을 지칭한 것인지, 혹은 전란(병자호란 등)을 지칭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세거지(世居地)는 문현1동의 문현안동네(줄여서 문안)인 ‘고동골’이다.

당시의 고동골은 사방이 깊은 골짜기와 높은 고개에 싸여 있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인근 마을 사람이 고동골로 갈 때는 ‘문안에 간다’, ‘안동네 간다’ 등으로 지칭했다. 여기서 문고개설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높은 고개는 이른바 ‘문(門)’의 상징이자 고개 ‘현(峴)’으로, 이 둘을 합하면 ‘문현(門峴)’이 된다.

문현2동에서 문안(문현안동네)으로 가는 길은 1950년대만 해도 현 전포대

로변 문현태영데시앙아파트 앞 길을 올라 문현여자중학교 옆의 샛길로 다녔다고 했다. 이 샛길은 일제 강점 때 좌천동 일대의 해안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해서 신작로까지 옮길 때 사용한 지름길이 되었다.

그 뒤 한국전쟁 때는 미군 434공병부대가 인근 지역의 도로 개수 때 이곳의 토석을 채취했고, 그 이후 1960년대 들어서는 동천의 호안 축조 공사 때 토석을 채취해 갔다. 문고개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없으나 현 문현1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갑자기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은 그 옛날 문고개에서 흘러내린 자락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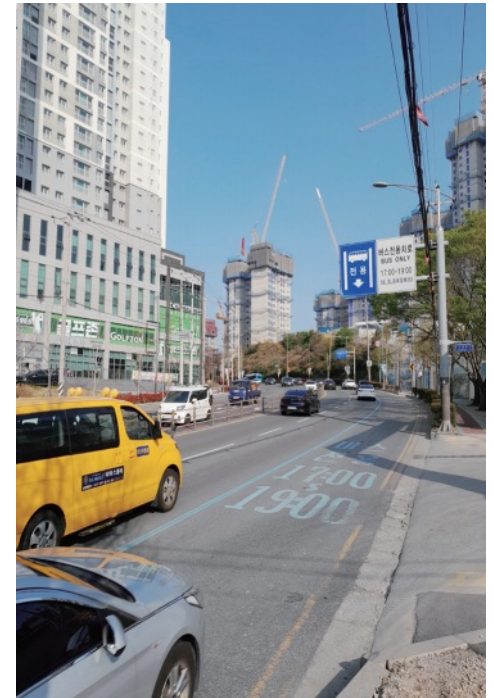
일제 강점 때 절개한 '문고개', 문현2동 주민이 문현1동 문안(문현안동네)을 갈 때 넘던 고개 <출처: 곽태욱>

(2) 문현4동의 '지계골설'

지계골의 높은 고개는 황령산에서 뺏어내린 원뿔의 산자락과 황령산의 지맥이 흘러서 우암반도로 뺏어 용기된 우룡산의 산자락이 흘러 겹쳐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진다. 여느 고개보다 높고 송림이 울창했던 형상은 외쪽문, 지계문 또는 출입구라는 뜻으로 쓰이는 순우리말 '지계문'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후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계문에 대한 혼란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오직 지계문을 열고 들어가야(고개를 넘어야) 대연동, 용호동은 물론 멀리 해운대나 기장 방면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계문의 '문'과 고개 '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문현(門峴)'인데, 지계문이 등짐을 지는 지계로 인식된 데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대공포를 설치한 장자터로 향해 샛길까지 개설되면서 도로 형상이 등짐을 지는 지계로 오인한 측면도 있다.

어떤 이는 고개가 워낙 높아서 지계를 내려놓고 쉬는 고개라서 지계골이 되었다고 우기기도 한다. 지계골은 한자로 '호곡(戶谷)'으로 쓴다. 여기서 '호(戶)'는 외쪽의 문인 지계문도 되고, 등짐을 지는 지계도 된다. 같은 글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호곡'으로 썼다면 어땠을까. 그나마 최근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역명 '지계골역' 덕분에 순우리말 '지계문'이 외쪽문이자 출입구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약 15m 이상 깎아내린 '지계골고개' <출처: 곽태욱>

2) 문현동의 입향조(入鄕祖)

문현1동의 입향조인 영산 신씨(靈山 辛氏)가 고동골에 정착해 세거지(世居地)가 된 시기는 1994년 발간한 『남구지(南區誌)』에 1780년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현4동의 입향조인 청주 한씨(淸州 韓氏)가 지계골에 정착한 시기는 부산

향토문화백과 <세거 성씨 현황>에서 부산 동래구 수안동의 입향조인 한지(韓址)의 입향 시기인 1700년대에 비정하면 그보다 후대로 추정된다.

다만 문현4동의 지계골 입향조가 고동골 입향조보다 조금 빨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진시황에게 불로불사의 영약을 구해오겠다고 한 반도로 건너온 도교의 술사 서복(徐福)이 '신선이 내려온' 문현동의 강선대(降仙臺) 방문 전설에 있다. 강선대와 지계골은 옆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있다. 그 소문만으로도 2200여 년 전 지계골에 인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1700년대에 고동골과 지계골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면 1849년 경상좌수영(현 수영구 수영사적공원)의 좌수사를 지낸 승정원 승지 이형하가 이듬해인 1850년에 편찬한 『내영지(萊營誌)』의 방리에는 현 남구 6개 동 중 '문현리'가 없고, 1894년 발행된 『동래부지(東萊府誌)』에서 '동래부 서면 문현리'가 처음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문현동 최초의 입향조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01 문현1동의 마을과 명소

1) 고동골마을

고동골마을은 문현1동의 입향조로 알려진 영산 신씨(靈山 辛氏) 형제분이 정착한 지역이다. 영산은 오늘날 경상남도 창녕군에 속한 영산면을 일컫는데, 입향조 형제분이 처음 돌무지와 목정밭을 일군 지역은 지금의 문현여자고등학교 동편 담 너머 일대로, 고불고불한 고동²⁾의 속 같았다고 했다. 이곳에는 현재 후손들이 큰집과 작은집으로 이웃하여 서로 우애를 나누며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영산 신씨 입향조 형제분이 이곳에 정착한 이유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만 신씨 집안의 21세기 현재 후손 아들 5형제 중 막내아들에게 18살에 시집온 며느리 이필금(2013년 대담. 당시 89살) 여사는 채록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이곳 영산 신씨 집안으로 시집온 지도 어언 70년쯤 지났다. 그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시어른께³⁾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할아버지 형제 두 분이 솔 하나만 달랑 등에 지고 난(亂)을 피해서 오신 곳이 황령산이었다더라. 한동안 황령산에 머물던 어느 날 문득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고불고불한 지형이 마치 고동⁴⁾의 속 같고, 인적이 닳은 산길도 보이지 않는 데다, 솔 바닥처럼 약간 오목한 목정밭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곳에 내려와 밤낮없이 목

2) 경상도 방언이다. 표준어는 '고+동(ㄱ+ㅇ)'이다. 발음이 쉬운 '고+동(ㄱ+ㅇ)'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대담 당시 '시어른'이라고만 해서 연대 추정이 어려움.

4) 앞의 '각주 2)'와 같음.

정밭도 일구고 돌무지도 걷어내고, 집터랑 텃밭도 그때 일구었다고 하더라.”

긴 이야기지만 ‘난을 피해’라는 부분과 “고불고불한 산길이 마치 고동의 속 같았다더라”라는 말에 귀 기울여진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난’이 어느 시대에 발발했고, 그것이 민란인지 전란인지 추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다만 고동의 속 같은 지형은 ‘고동골’의 발원지였음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2) 문안마을(문현안동네)

문안은 ‘문현안동네’를 줄인 명칭이다. 동시에 ‘고개’를 상징하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동네라는 뜻이기도 하다. 안동네로 가려면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이를 ‘문고개’라 했다. 한자로 쓰면 ‘문(門)’과 ‘고개(峴)’가 합쳐진 ‘문현(門峴)’이다. 문현동의 동 이름 유래가 문현4동의 ‘지계골고개’와 함께 이 ‘문고개’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문안마을(문현안동네) 발상지는 ‘고동골’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현1동 전역을 지칭하는 지명이 되었다. 문현2동에서 태어나서 2025년 현재 80살이 된 원로 토박이 주민이 코흘리개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문안에 간다”라든지 “안동네 간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은 당시 ‘애장터’가 많았던 공동묘지(후일 돌산마을)로 어른들을 따라 자주 갔던 기억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문고개’이다. 현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현초등학교 사이의 높은 고개, 즉 문고개를 넘어야 ‘애장터’로 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문고개는 일제 강점 때 좌천동 해안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느라 일부를 절개했고, 한국전쟁 시기와 1960년대 동천 호안 축조 때도 토석을 채취했다. 그래서 이곳일대는 거의 평지가 되었다.

그리고, 대연동에서 문안마을(문현안동네)로 가려면 현 남구청 뒷길을 따라 ‘연포하늘공원’을 지나 높은 고개를 넘었다. 이 고개를 ‘고동골고개’라 불렀다. 문현3동에서 문안마을(문현안동네)로 가려면 현 메가마트 문현점 입구 부근쯤 몇 발자국 떨어져 마주 선 할배당산나무와 할매당산나무를 지나야 했다. 이 당산나무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이 문현동 지역에 주둔할 때 베어졌다고 한다.

3) 농막마을

현 문현초등학교 후문에서 황령산 서편 자락을 향해 올라가는 골짜기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주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소작농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거적이나 나무 등으로 열기설기 엮어서 만든 일련의 간이 건축물인 ‘농막’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을 말한다.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 약 2~30여 호 정도의 농막이 있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듬해에 ‘문현리’는 ‘문현동’으로 개칭되었다. 해방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피란민들이 문현동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투리땅도 찾기 어려워져서 더는 농막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농막마을 위에 형성돼 있던 공동묘지 주변으로 눈길을 돌렸다. 후일 돌산마을의 시작이었다.

4) 돌산마을

농막마을에서 자투리땅도 얻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당장 풍찬노숙을 면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공동묘지 주변부터 고단한 몸을 널 농막이나 움막을 하나 둘 지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을 절반만 남겨두고 농막이나 움막을 짓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 안에 무덤을 둔 채 짓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비석을 문 앞에 세워둔 채 짓기도 했다.



1993년 돌산마을 <출처: 『내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부산남구청, 2014 권) 118페이지 상단 오른쪽 사진>

힘든 생활전선을 헤쳐가야 할 주민들로서는 고단한 몸을 뉘 자리를 내어준 망자의 말 없는 음덕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별초도 하고 특정한 날은 성묘도 하며 망자에게 입주자의 도리와 정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오랫동안 공존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곳 일대의 지질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유난히 돌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음울한 공동묘지 지역이라는 인식을 벗기자 ‘돌산마을’로 개칭해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구청에서 2014년에 발간한 향토사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에도 ‘돌산마을’로 소개되었다.

5) 벽화마을(돌산마을)

2008년 마을 입구에 ‘벽화거리 시범사업 마을’이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졌다. 이 입간판에 안내된 벽화마을 지도에는 어느 집의 담과 벽은 물론 골목

골목을 빠트리지 않고 다양한 그림들이 채워졌다. 그림의 주제는 한국의 세시 풍속, 미풍양속, 풍경, 동·식물, 외국의 유명 동화 캐릭터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3개월에 걸쳐 그린 벽화가 총 47점에 이른다.

처음 벽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찬반이 갈렸다고 한다. 힘들게 사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벽화마을 1호’라는 명성을 얻은 돌산마을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자연 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2010년에는 ‘돌산공원’이 새롭게 정비해서 개장했다. 이때부터 마을의 형태와 면모는 더욱 새로워졌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돌산마을은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지금은 사라진 ‘안동네’ 돌산벽화마을 사람들이야기(2024년 7월)』-「부산근현대구술자료지15」에서 벽화마을은 돌산마을과 함께 ‘돌산벽화마을’로 기록되었다. 이제는 기억의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된 이 지역 일대는 현재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축공사>로 건설중장비 소리가 드높다.



돌산마을 일대, 현재 재개발공사가 한창이다. <출처: 광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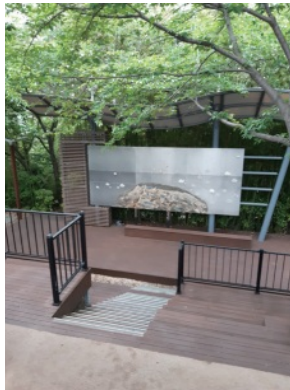
6) 돌산마을과 돌산공원

문현1동 끝단의 돌산마을 앞 고개가 전포고개이다. 이 고갯마루 왼편 끝자락에 돌산공원이 있다. 돌산공원의 남구 쪽 주소는 '남구 문현동 산24-1번지'이다. 공원 내에는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이 겸비되어 있다.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사색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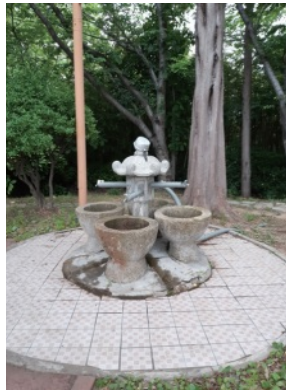
철 따라 피는 벚꽃이나 동백꽃 등이 어우러진 소규모 공연장과 시계탑도 설치돼 있다. 야간에는 문현2동 문현금융단지의 63층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 꼭대기에서 '항공장애등'이 명멸하고, 부산진구의 서면 시가지는 현대판 별천지처럼 네온 불빛의 향연장이 펼쳐져 있다. 전포고개 고갯마루 오른편이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입구이다.



돌산공원 안내표지판 <출처: 곽태욱>



야외공연장 <출처: 곽태욱>



음용수대 <출처: 곽태욱>

7)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문현1동 돌산마을 입구는 황령산 서편 산비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갯마루에 위치한다. 이 '전포고개' 고갯마루는 남구 문현동과 부산진구 전포동의 경계가 된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깔려 있고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남구 문현동과 부산진구 전포동을 오갈 때 비교적 교통체증 없이 여유 있게 넘나드

는 유일한 길이다.

이곳 고갯마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황령산 서편 자락의 등산로 겸 산책로로 초입에 들어서면서 곧 임도가 시작된다. 임도 오른편 가장자리에는 약 1m 너비의 보행데크가 야외 쉼터까지 깔려 있다. 생태숲 안내도에는 나무 종류별로 자귀나무림, 굴거리나무림, 편백림, 녹나무림, 복자기림, 가시나무림, 해송림 등의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

이 지역도 공동묘지였으나 남구청은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묘지 이장과 사유지 매입 등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진입로와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해 2022년 1월 친환경 휴양시설인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부산 남구 진남로 268)을 개장함으로써 황령산 봉수대와 전망대,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연계되는 친환경 휴양시설로 변모하였다.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입구 <출처: 곽태욱>



8) 황령산 코바위(배바위)

황령산 코바위는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공원에서 임도를 따라 바람고개 방향으로 약 2~3분쯤 올라가다 보면 왼편(북쪽) 비탈면 바위에 뿔 뚫린 두 개의 커다란 구멍을 가리킨다. 사람 얼굴로 치면 코뿌리 윗부분이나 콧구멍 아랫부

분이 없어도 두 개의 큰 구멍 사이에 기둥이 있어서 마치 사람 얼굴의 코중격을 연상시켜서 '코바위'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이곳 코바위는 무속인들의 기도처로도 사용되었으나, 남구청은 산사태와 낙석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험표시 안전테이프를 코바위로 올라가는 입구를 막았다. 그 이후 무속인들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산책객들도 꽤 오랫동안 이곳을 출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향축(香燭)의 냄새나 촛농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제단으로 사용하던 반석 위도 말끔해졌다.

그런데 코바위를 '배바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배를 묶었던 곳이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그 옛날 선착장이었다는 말도 된다. 그렇다면 이곳이 정말 바다였다는 뜻이다. 조개껍질이 발견된 적도 있어서 '배바위'라 우겨도 긴가민가할 뿐이다.



코바위 (출처 : 광태욱)

9) 만리성(萬里城)

1910년 본격적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이 무렵만 해도 현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남구 고동골로60번길 1)부터 돌산마을 앞의 전포고개까지 성인

남자 키보다 큰 바위 위주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쪽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⁵⁾

대략 0.8km~1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크고 작은 바윗돌로 세워 놓은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만리성(萬里城)'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이 만리성을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나무 심듯 일렬로, 그것도 동천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도열시켜 났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외부세력이 동천에 상륙하여 침입할 것에 대비한 축조물로 보더라도 동천에서 이곳까지의 거리와 지형 조건을 따져보면 방어용 축조물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만리성 축조 행태가 허물어진 것은 일본인들의 관사나 사택 정원을 꾸미는 조경용으로 하나둘 빼어가면서 시작되었다는데, 1920~30년경부터는 부산 동구 좌천동 일대의 해안 매립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문현초등학교 서편의 문고개(문현)를 절개해서 필요한 토석을 채취해 갔다. 자연 만리성도 이때 사라졌다고 한다.

10) 고동골고개, 전포고개, 문고개

현 남구청 서편 출입문을 나서면 도로 건너 롯데캐슬 아파트단지가 있다. 이 아파트단지 담을 따라서 남서 방향의 경사로를 오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왼편은 중앙고등학교 방면을 향하고 오른편은 2021년 2월경 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 위에 조성된 '연포하늘공원' 쪽을 향한다.

연포하늘공원 옆의 도로는 경사도가 매우 높은 고갯마루로 이어진다. 이 고개가 문현 안동네로 들어가는 '고동골고개'이다. 이 고개는 문현동과 대연동의 경계이다. 또 돌산벽화마을 앞을 지나가는 '전포고개'는 남구 문현동과 부

5) 고동골 입향조 영산 신씨의 21세기 후손 5형제 중 막내며느리 이필금 여사(2013년 대담. 당시 89살) 구술에 의함.

산진구 전포동의 경계에 있다.

또 다른 고개는 지명 ‘문현(門峴)’이 유래된 ‘문고개’가 있다. 본래는 높은 산이었으나 현재 문현초등학교 서편에 일부만 남아있다. 일제강점 때 좌천동 일대의 해안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이 고개 일부를 절개해 채취해 갔다. 한국전쟁 때는 인근 지역 도로 개수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했고, 1960년대는 동천 호안 축조 공사 때 토석을 채취해 갔다. 이로써 ‘문고개’는 사라지고 이곳 일대는 평지처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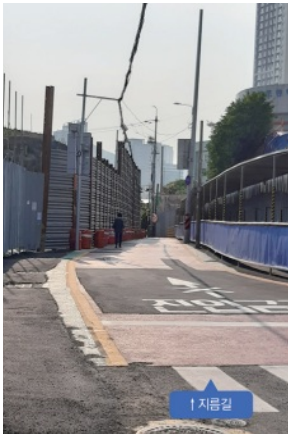


이 전포고개 고갯마루 왼편이 돌산마을(벽화마을), 오른편이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출처: 곽태욱>

[일제강점기 ‘문고개(문현)’ 절개 후 채취한 토석을 신작로까지 운반한 지름길 추정]



문고개(문현) 절개 → 현 문현1동행정복지센터 서편 이면도로 <출처: 곽태욱>



현 문현1동행정복지센터 서편 이면도로 → 성동초등학교 후문 방향 <출처: 곽태욱>



현 문현1동행정복지센터 → 성동초등학교 후문, 문현여자중학교 → 신작로 <출처: 곽태욱>

11) 흙구디(흙구덩이)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부산 동구 좌천동 일대의 해안은 대대적인 해안 매립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필요한 토석을 문현초등학교 서편에 우뚝 솟아있는 야산⁶⁾을 허문 뒤 트럭이 대기 중인 지금의 문현태영데시앙아파트와 문현삼성힐타워아파트 주차장 사이쯤 되는 비포장 신작로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동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던 낮은 야산까지 일부 절개해서 신작로까지 이어지는 지름길을 내고 여기에 레일을 깔아 채취한 토석을 광차(또는 대차)로 신작로까지 운반했다. 지금의 문현여자중학교 부근에서도 흙을 파냈다. 그 후 해방을 맞았고, 5년 뒤 한국전쟁 당시 미군 434공병부대가 인근의 도로를 개수하면서 이 일대의 토석을 채취해 갔다.

또 1960년대 동천을 정비하면서 호안 축조 공사 때도 채취해 갔는데, 그 뒤 1975~1977년까지 부산항 제1부두 개축 공사를 할 때도 이곳 일대에서 토석을 채취해 갔다. 계속해서 토석을 파내다 보니 자연 큰 구덩이가 생기면서 ‘흙구디(흙구덩이)’라 불렸다. 현재 그 일대는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당시의 깊은 구덩이가 어디쯤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12) 일본군 야외훈련장

일제강점기에 부산공고(현 남구청) 자리에 일본군이 주둔했다. 막사와 창고로 사용할 건축물 3동을 크게 지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이곳 병영 내의 사용공간이 복잡하거나 훈련 또는 신병 입대자들의 신체검사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한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당시 일본군이 훈련이나 행사 등을 할 때 목정밭 같

6) 문현2동 사람들이 문현1동의 고동골 등 문현안동네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높은 고개(문고개).

은 이곳 공한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⁷⁾

일제가 1925년 좌천동 일대 해안 매립 공사 때 이곳 심산유곡을 들어가는 문고개를 절개해서 필요한 토석을 채취해 가면서 울퉁불퉁하던 문현초등학교 일대와 한양아파트 일대를 골랐다고 한다. 그 이후 평지 같은 목정밭이 된 이곳 공한지는 한국전쟁 시기에는 국군 징집 신병 훈련장소로 사용했다고도 한다. 인근의 성동초등학교는 미군이 주둔하다 1952년 철수한 장소에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현초등학교 일대 <출처: 광대옥>

7) 앞의 '각주 5)'와 같음.

02 문현2동의 마을과 명소

1) 웃농막마을

웃농막마을은 문현2동이다. 마을 위치 및 지형상 문현1동의 돌산마을(벽화마을)보다 낮은 지역인데도 '웃농막'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나, 문현1동의 '농막마을'보다 이른 시기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현재 문현2동 쪽에서 돌산마을로 오르는 등산로 겸 1970년 설립한 한얼고등학교의 가파른 등갓길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에 '돌산아랫마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제 강점 때 웃농막마을에서도 1925년부터 시작된 좌천동 해안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해 갔다. 이를 구실로 마을 수호신을 모신 당산이 강제로 헐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만행은 1993년에 이르러서야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문현2동 613번지에 청기와 지붕으로 약 2평 규모의 제당을 복원하고, 1994년 5월 1일 '당산복원환단 당산제'를 올렸다.⁸⁾

동제당은 청기와 팔작지붕이고, 출입문 좌측 담 밑에 '복원환단 내력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에 새겨진 글자는 한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어서 모두 한글로 바꾸어 새로 적은 내용을 아래 동제당 사진 밑에 배치하였다. 다만 비문의 뜻글자인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서 '동자산 → 동 자산'으로, '임대선세금 → 임대 선세금' 등으로 몇 군데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있다.

8) 『남구의 민속과 문화』(부산남구민속회, 2001刊) 426페이지



웃농막마을 동제당, 문현2동 613번지(황령대로90번길 63) <출처: 객태육>

동제당의 내력

서기 1845년 전후하여 차츰 마을의 윤곽이 형성되어 웃농막이라 호칭되던 시기로부터 있어 왔던 향리의 토속적 수호신을 모신 당산을 일제가 한민족 문화말살정책과, 1925년 좌천동 해변 일대의 매축을 구실로 동산 토석을 채취하던 과정에서 당신이 헐리게 되어 부득이 본동 620번지에 천단하였다가 1969년 문현노인정 사옥을 건축하고 2층 옥상에 제단을 안치하였다.

회고컨대 8·15해방과 6·25전쟁 등의 세태 혼란기를 거치면서 동민의 생활상에 따른 이주집산이 빈번했던 시기의 불가피로 70년 동안 문현노인정 몇몇 사람의 향사로 명맥만 이어오던 것을 이제 동민의 총의를 모아 동 자사인 구 문현노인정 사옥의 임대 선세금과 뜻있는 동민의 성금으로 급기야 원위치에 복원 건립하여 현대적 감각에 적응하는 동 제단이라 현판을 걸고 첫 대동제에 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영원한 동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의 차원으로 승화하는 동제(당산제)를 봉사코자 전 동민의 염원을 담아 그 뜻에 각명해 둔다.

서기 1994년 5월 1일 삼가 세우다

2) 보영극장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2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에 서면 건너 맞은편 정면에 합판 판매점이 보인다. 또 3번 출구로 나오면 부산은행 앞에서 남향에서도 합판 판매점이 보인다. 그 앞은 자투리땅이고, 그 뒤는 좁은 골목 도로이다. 이를 모두 합친 공간이 1970년대 영화 2편을 동시 상영·조조할인 등으로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옛 보영극장⁹⁾ 터로 추정된다. 거기서 한 블록 뒤에 이마트 문현점이 있다.

보영극장 개관 당시 행정상의 주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541번지이다. 극장 건물은 천장이 매우 높은 단관으로, 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영사실에서 전방의 대형스크린까지 닿는 영사기의 불빛 속에는 온갖 먼지가 눈보라처럼 휘날렸다. 관람객 좌석은 총 328석 규모로, 1962년 개관해서 1977년 폐관했다.

당시 보영극장 앞에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은 독 위에 화물열차 우암선 선로가 깔려 있었다. 그 독을 ‘철독’이라 했고, 그 아래 사람과 우마차, 손수레, 자동차 등이 지나다니는 유일한 통로를 ‘굴다리’라고 했다. 매우 낮고 좁은 굴다리에 택시가 진입하더라도 차체 손상을 걱정해서 무척 조심스럽게 통과했다.

3) 썩은다리(무지개다리)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기 전 이곳 일대에 육군 제2차량정비창이 있었다. 우암선 화물열차는 부전역으로 향했는데, 문현선(1941년 건설, 부산진-감만부두)은 육군 제2차량정비창 가기 전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썩은다리(무지개다리를 건너 부산진시장 뒤편에 깔린 단선을 거쳐 부산진역으로 향했다.

9) 부산극장사 320P, 홍영철, 도서출판 부산포커, 2014.

썩은 다리(무지개다리) 아래 흐르는 동천 수질은 1960년대에 도 그리 맑은 편이 아니었다. 철로 밑에 깔린 일정한 간격의 침목 사이 공간으로 자칫 발을 헛디터 밑으로 빠지면 심한 타박상이나 그 이상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침목 옆으로 나무다리를 놓았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발판이 썩기 시작했고 결국 ‘썩은다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1998년 부산진구에서 새 다리를 개통하고 범2호교로 명명된 ‘무지개다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썩은다리’로 부른다. 하지만 옛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025년 무지개다리 <출처: 곽태욱>

4) 골동품거리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 미쓰이그룹이 부산 동구 범일동의 광활한 부지 위에 한국 최초·최대 기계화 방직공장인 조선방직주식회사(조선방직)를 설립했다. 이를 줄여서 오늘날까지 ‘조방’ 혹은 ‘조방앞’이라 부르는데, 해방 이후 경영진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1969년 조선방직주식회사는 공식 해산·철거된 뒤 그 자리에는 부산시민회관, 자유시장, 평화시장은 물론 한때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되던 상업지구로 변모했다.

특히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이 가깝게 붙어 있어 웬만한 생활용품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물건값도 싸니 편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외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붐비니 음식점(특히 돼지국밥집)도 늘어났고, 현 귀금속거리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인 1960~80년대만 해도 그 일대에 현책방, 현 옷가게, 시계수리점, 전자제품 수리점 등이 성업 중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 분위기가 무지개다리를 건너와 지금의 문현동 골동품거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골동품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되었거나 좀 더 진귀한 물건은 없는지 이곳으로 발길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대략 10~15년 전쯤부터 지금의 골동품거리가 형성되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이 많다. 현재 약 20~30여 곳 넘는 골동품가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일대는 평일보다 일요일에 더욱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다.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의 도로 왼편 건물을 확대한 것이다. 도로 끝은 무지개다리로 이어진다. <출처: 곽태욱>

5) 문현금융단지와 그 일대의 옛 모습

부산 남구 문현2동에 조성된 문현혁신도시는 ‘문현금융단지’로도 불린다. 랜드마크타워인 289m 높이의 63층 BIFC(부산국제금융센터)는 2014년 8월 22일 개장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남구청 등의 관공서나 입주한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생략하기로 한다.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이 부지에 육군 제2정비창(이하 정비창)이 있었다. 우암선 화물열차가 이곳 정비창까지 오기 직전 현 골동품거리로 방향을 틀면 썩은다리(무지개다리)를 건너 부산진역으로 돌아갔고, 정비창 앞으로 지나가면 부전역을 향했다.



문현금융단지와 전포대로 건너편 <출처 : 객태옥>

1977년 보영극장 폐관 이전만 해도 우암선 선로는 사람 키보다 높은 독길 위에 깔려 있었다. 1950년대는 독길 아래 그 당시의 운송수단이던 소달구지와 말달구지의 발굽을 다듬어 주거나 편자를 갈아주는 대장간이 성업 중이었으나, 1960년대 들어 점차 줄어들었고, 그 일대는 나지막하고 허름한 판잣집이 늘어났다.

1970년대만 해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전포대로 건너편에는 가마니와 새끼줄 판매 가게가 길가에 즐비해 있었다. 규모가 조금 큰 가게는 일본식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畳)'를 짜서 길가에 내놓기도 했다. 길가에는 '다다미 팝니다', '가마니 짍니다' 등의 광고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6) 문현2동의 동천 수상가옥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까지 내려와 피란살이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주인 없는 땅을 찾아 농막이나 움막을 짓기 힘들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망자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덤 옆에 농막이나 움막을 지었다. 그곳이 바로 한때 '묘지

마을'로 부르던 문현1동의 '돌산마을'이다. 1951년 1·4후퇴 이후에는 피란민이 망자의 유택에 더부살이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동천변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동천변 수상가옥은 상하류를 가리지 않았다. 동천 하류에도 수상가옥 십여 채가 지어졌다. 개흙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양철(도단) 조각이든 판자때기 등 가리지 않고 이어붙인 판잣집이었다. 하지만 밀물 때는 방바닥 바로 밑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동천 상류인 부산공고(현 성동중학교) 앞 지금의 범5호교 건너편 가장자리부터 이마트 문현점 건너편 일대에 수십 채의 수상가옥이 지어졌다.



동천 수상가옥(1952년)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사진제공 김한근)-(부산남구청, 2014 권) 33페이지)>
(사진 왼쪽) 복선 철로 우암선 (사진 오른쪽) 즐비한 수상가옥은 현 문현2동 이마트 문현점 근처의 동천변으로 추정된다.

7) 이중섭 화백의 <판잣집 화실>과 <문현동 풍경>

이중섭 화백은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한국적인 미를 그린 <소>의 화가이며 독특한 <은지화>를 구현한 세계적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인 아내 이남덕(야마모토 마사코) 여사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동안 터전을 이루었던 원산을 떠나 같은 해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해 우암동 소막의 피란민 수용소 생활부터 피란살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1951년 우암동 피란민 수용소를 나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간 그는 1년여를 보낸 뒤 1952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범일동에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 와중에 장인의 부음을 듣고 아내와 아들을 일본 친정으로 보낸다. 그 후 문현1동 돌산마을에 집이 있었다는 박고석 화백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잠을 자거나 끼니를 때우고 어떤 땐 밤새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도 한다.



현 성동중학교 앞 동천변 - 흰 오각형 표시는 당시 부산공고 미술교사 박고석 화백이 지었다는 이중섭 화백의 '판잣집 화실' 위치로 추정 (출처: 곽태욱)

박고석 화백은 당시 부산공업고등학교(현 성동중학교 자리) 미술 교사를 하며 어느날 학교 서편 담 너머 동천에 10평 정도의 판잣집을 지어 작업실을 열었다고 한다. 이중섭 화백이 남긴 <판잣집 화실>이 그것이라 여겨진다. 그 자취를 더듬어보려고 토박이 원로 주민 중 올해 80~90살 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혹시 그의 <문현동 풍경>도 박고석 화백의 집 주변을 그렸을까? 만약 그가 <여름밤 도깨비불의 향연>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라도 남겼다면 어땠을까? 무덤가에 내려앉은 박쥐 떼가 해골에 고인 물로 목을 축이고 비상할 때 물기 마른 인(隣)이 공기 마찰로 발화한다는 소위 '도깨비불'은 당시 애장터가 많았던 돌산마을의 여름밤 풍경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문현동 시절은 더 분명해졌겠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자취조차 찾을 수 없다.

03 문현3동의 마을과 명소

1) 지게골고개

지게골고개는 문현3동과 문현4동 주민들이 옛날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던 공통지명이다. 그래서 지게골고개는 문현3동에서 소개하고, 행정구역상의 지게골마을은 문현4동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지게골고개는 문현동에서 대연동으로 넘는 고개라는 뜻으로 '문현고개'로 불렸다. 반대로 대연동에서는 '대연고개'라 불렸다. 지게골고개와 바로 접하게 되는 고개가 또 있는데 대연동에 속한 '신정고개(또는 신동고개)'가 그것이다. 이 고개를 '신정시장(또는 신동시장)'이라 불러도 응당 그 위치를 알아들을 만큼 신정고개가 곧 신정시장이기도 했다. 대연동 편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지게골고개는 19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워낙 고개가 높고 송림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든 고개였다. 그 위치는 문현교차로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완만한 수영로 6차선 오르막길을 오르면 문현동과 대연동의 경계인 고갯마루에 올라선다. 이 고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예로부터 내려온 본래 이름인 '지게골고개'로 불러야 옳다.

한국전쟁 시기만 해도 지게골고개는 매우 높았다. 지금의 남구청 자리에 미군이 주둔할 때 급하게 도로 착평 공사를 했으나 그 이후에도 사람을 많이 태운 버스가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로 밀려 내려왔다고 한다.

1965년 도로 착평 공사 이후 오늘날처럼 완만한 고개가 되었으며, 점차 도로 폭도 넓혀서 현재 왕복 6차선이 되었다.

옛 지게골고개의 높이를 가늠하려면 현 문현3동 끝단인 대연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출입 정문에 서서 맞은편 버스정류소 뒤의 축대 위에 조금 남아 있는 숲더미 언덕을 보면 그 힌트가 남아 있다. 언덕 8부 높이쯤 사람의 발길에 닳은 옛길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도로 바닥에서 대략 15m 높이쯤에 가로로 길게 그은 듯한 희미한 선이 그것이다.



지게골고개의 높이를 가늠하려면 현 대연동 방면 버스정류소 옆 고갯마루의 숲더미에(오른쪽 사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주택지 축대 / ㉡ 통상 고갯길) <출처: 곽태욱>

2) 새마을고개와 솜틀공장

문현교차로에서 남구청을 향해 수영로 왕복 6차선을 오를 때 지금의 지게골복지관이 있는 우측 일대가 '지게골'이고 좌측 일대는 '새마을'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왜 '새마을'이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일제 강점에서 해방을 맞아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마을'이 되었고, 거기에 고개까지 끼고 있으니 '새마을고개'로 불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거론된 1987년경만 해도 택시를 타고 "새마을(고개) 갑시다."라고 주문하면 택시기사도 자연스럽게 행로를 잡았다. 혹자는 1970년 4월경 농촌계몽 운동인 새마을운동 시작 때 생긴 마을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역명인 '지게골역'의 영향도 크지만 먼 옛날부터 '지게골'이었다.



솜틀공장 <출처: 곽태욱>

한 가지 특색이 있었다면, 한국 전쟁 이후 지게골고개 일대에는 솜틀공장이 늘어났다는 점이였다. 솜은 전통적인 침구용이라서 일정 기간 사용하면 솜 속의 먼지, 찌꺼기 등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부풀린 솜을 재사용했다. 이를 '솜틀'이라 했는데, 2025년 현재 부산도시철도 지게골역 1번 출구를 나와 우측으로 살짝 눈길만 돌려도 성업 중인 '솜틀공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3) 연동(蓮東)마을

천제등(天祭嶺, 통칭 우룡산) 자락의 맑은 물이 지게골마을의 다랑이 전답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시 낮은 지대로 흘러가 큰 못에 다다랐다. 이 못에는 조선 시대부터 7~8월 여름에 연분홍색과 흰색 꽃을 피우는 연꽃이 항상 동쪽을 향해 꽃대가 굽어서 자란다고 해서 이 일대를 연동마을이라 했다. 연동마을을 친숙하게 부를 때는 '연동개(蓮東開)', '연동리(蓮東里)', '연동계(蓮東系)' 등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당시 장고개에 사는 김선이 할머니(2013년 2월 대담, 당시 91살)의 못에 대한 기억과,¹⁰⁾ 어린 시절 못 가운데 집이 있어서 거리상 가까운 동구의 성남초등학교를 다녔다는 한용조 선생(2013년 5월 대담, 당시 74살)의 기억을 합하면, 못 크기는 매우 큰 편이었고, 그 형태는 둥글지도 않고 네모도 아니었으며, 깊이는 어른 무릎 높이 정도였다고 정리된다.

연동마을의 유래에 대한 여러 원로 어른들의 기억에 의하면, 지금의 문현곱창골목 거리를 벗어나 지계골고개를 향해 옛길(이면도로)을 올라가면 벽산한성기린아파트 입구를 만난다. 여기서 약 50m쯤 더 올라가면 왼편에 당면공장이 있던 대진아파트 후문에 이른다. 이 부근 일대에 큰 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못이 있던 자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오직 건물만 즐비해 있다.

4)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敵産家屋)’

문현동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사나 사택이 지어졌다. 문현로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먼저 문현지하도를 올라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 방향의 교통광장 쌈지공원이 시작된다. 1960년대만 해도 이 쌈지공원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의 산록이 있었다. 서편은 급경사 비탈면으로, 비탈 아래는 부산진구 전포동을 향하는 비포장 신작로였다.

현재 문현지하도 엘리베이터 앞의 문현교통광장 쌈지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쯤부터 산정을 향해 올라가며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기와집이 대략 십여 채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주거 가옥은 1945년 해방 후 이른바 ‘적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 불렸다.

당시 이곳 적산가옥 앞은 손수레 한두 대 정도가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10) 못 가운데 한용조 선생의 집이 있었다는 기억으로 미루어, 아마 집을 제외한 못 크기를 10m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김선이 할머니의 기억은 못 크기가 10m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했다.

계속 오르막을 유지하며 산봉우리까지 올라갔다. 대문은 모두 서편으로 났고, 대부분 앞집의 뒷벽 밑으로 화단이 조성돼 있었다. 본채 건물은 남향으로 앉았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단이 창문을 열고 긴 일자형 복도로 올라서야 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문현지하도 부근의 다솜동물병원 앞 이면도로를 따라가면 그곳에도 일본식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이 기와집은 대문과 본채는 동향이었고, 본채 위에 통풍구인지 알 수 없으나 조그만 기와지붕 하나가 더 얹힌 구조였다. 해방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외벽이나 지붕을 고친 흔적이 보여 전통 한옥인지 아닌지 얼른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무렵이 지나면 그 일대가 이면도로로 확장되면서 철거되었다.

또 다른 적산가옥은 문현4동 쪽에 한 채가 있었다. 문현로터리에서 우암로를 따라가다 문현곱창골목을 지나자마자 장고개를 향하는 중간 경사길 초입(우암로 374번길 일원)에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한 채가 일자형으로 꽤 길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관사나 사택들은 1945년 해방 후 조선방직이나 대선양조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5) 도시고속화도로 문현램프 2개소와 부산도시철도 2호선 3개역

문현교차로를 중심으로 문현2동과 문현3동에 걸쳐서 도시고속화도로 문현램프 2개소가 있다. 문현3동에 속한 제1도시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종점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IC에서 수영구 남천동 - 남구 대연동 - 남구 문현동 - 동구 범일동 향만삼거리까지 연결된 도시고속화도로이다. 향만삼거리에서는 중구 충장고가차도로와 연결된다. 본래 도로명은 ‘번영로’인데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1977년 5월에 착공하여 1980년 9월 7일에 개통되었다.

문현2동에 속한 도시고속화도로 문현램프는 공식 도로명이 제2도시고속도로인데 통상 '동서고가'로 줄여서 부른다. 또 문현동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한다. 2호선 전 구간의 정거장은 총 43개소인데 남구는 6개소가 있고 그중 3개 정거장이 문현동을 경유한다.¹¹⁾

노선의 고유색은 녹색(연두색)이다. 1999년 6월30일에 서면~호포 간 최초 개통하여 2008년 1월 10일 2호선 연장 구간(호포~양산)까지 전 구간 개통했다. 이로써 문현동은 명실공히 부산 남구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번영로 문현터널
〈출처: 『남구 구정 40년』
(부산 남구청 권) 77페이지〉



동서고가도로
〈출처: 『남구 구정 40년』
(부산 남구청 권) 32페이지〉



도시철도안내판
〈출처: 『곽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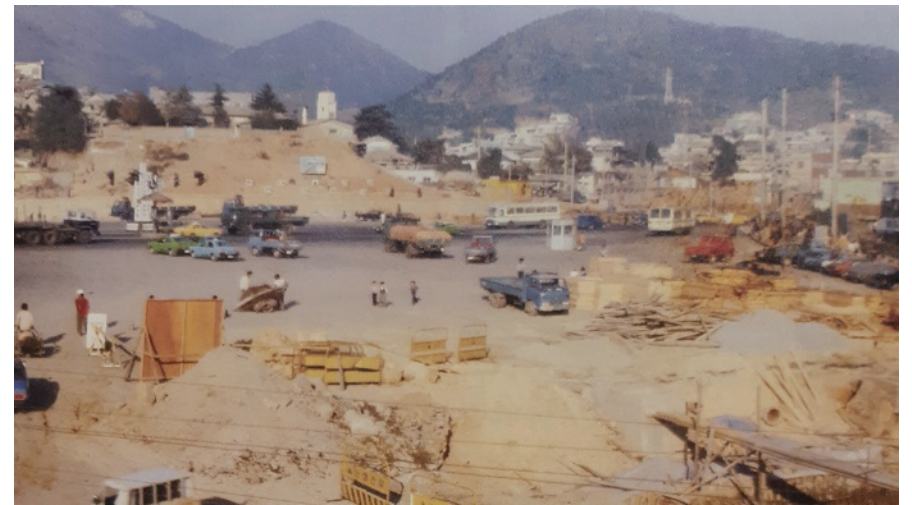
6) 문현3동에 정문이 있던 육군 부대

한국전쟁 시기 문현동에도 미군이 주둔했는데, 1952년 개교한 문현1동의 성동초등학교 자리는 미군이 임시 막사를 설치해 주둔하다 철수한 곳이다. 문현4동의 대양고등학교 입구 오른쪽 건물은 미군 장교 숙소가 있었다고 전해

11) 부산도시철도 2호선 남구 6개소 역명(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문현역, 지계골역, 못골역, 대연역, 경성대·부경대역)

지는 곳이다. 2025년 현재 이곳 일대는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으로 옛 모습을 볼 수 없다.

문현3동의 메가마트 문현점부터 문현1동의 문현여자고등학교 담장까지에 이르는 지역에도 미군이 주둔했다고 한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는 육군 수송부대가 주둔했다고 하는데, 1970년대 초쯤 이전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부대 정문은 문현로터리를 품고 있는 문현3동의 메가마트 문현점 앞에 있었다.



1980년 문현로터리, 현 전포대로 방향으로 도로 개설공사가 한창이다.
〈출처: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부산남구청, 2014 권) 29페이지〉

7) 문현 장고개

장고개는 부산진시장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가기 위해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주민들이 넘던 고갯길을 말한다. 옛날부터 남구에는 '장고개'가 두 군데 있는데, '용당 장고개'와 '우암 장고개'이다. 이중 문현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암 장고개'를 그냥 '장고개'라고 하거나 '문현 장고개'라 했지 '우암 장고개'라 부르지는 않았다.

문현동에서 장고개를 넘어 우암(적기) 뱃머리로 가려면 현 왕복 2차선 간선 도로는 하천이었다. 장고개를 오르는 옛길은 현 배정고등학교 진입로에서 왼쪽 도로를 따라 고갯마루에 오르면 스텐공장이 즐비한 앞길로 벵이 보이는 끝까지 가면 경삿길로 내려갔다. 여기서 계속 길따라 내려가면 '구 우암동사무소' 뒤로 난 좁은 길이 나왔다. 이 길을 따라가면 아신아파트 앞이다. 이 옛길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나머지 장고개 부분 설명은 문현4동 편에서 보낸다.

8) 문현동의 장고개 스텐양식기 공장

문현동에서 장고개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오른쪽이 문현동이고, 왼쪽이 우암동이다. 문현동 장고개에는 1960년대 말엽부터 약 30여 업체가 넘는 스텐(리스(스텐) 양식기 공장이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전쟁 이후 늦그릇 재료가 부족한 점도 스텐 그릇 보급을 촉발했지만 녹슬 염려도 없고 훨씬 가벼운 데다 보관하기도 수월했다. 그뿐만 아니라 값도 싼다. 자연 식생활의 기본인 스텐 수저와 그릇의 대변화를 주도했다.

장고개의 스텐양식기 공장이 한창 번성할 때는 주야로 쉴 새 없이 가동해도 주문량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플라스틱 합성수지 용기 제품이 주방을 차지했고, 1990년 말엽부터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소수의 공장만 남더니 결국 타지로 이전하거나 폐업이 줄을 이었다. 현재 그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그 옆으로 계속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04 문현4동의 마을과 명소

1) 지계골마을

지계골마을은 현재 문현4동에 속한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역명인 '지계골역' 덕분에 전국적인 유명세가 높아졌다. 다만 '지계골'이라 하면 지계골역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 문현3동이 지계골이라 해도 거부감이 없다. 지계골역 2번, 4번 출구가 문현3동 쪽으로 나 있는 영항도 작용한다. 그렇지만 문현4동에 속한 지계골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지계골마을로 가는 옛길 <출처: 광태욱>

지계골마을은 지계골역 3번 출구를 나온 뒤부터 설명하면 쉽다.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문현동 우체국이 보인다. 여기서 대연고개(문현고개) 방향으로 길을 잡아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계골복지관이 나온다. 이곳을 지나 대연고개(문현고개) 정상인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뒤돌아보면 지계골역 3번 출구부터 이곳까지를 지계골마을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계골에 처음 사람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룬 입향조는 청주 한씨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당시의 청주 한씨 후손인 대답자의 나이는 74살이라 했고, 자신은 지계골에서만 6대손이라 했다. 이를 역산해 보면 대략 1800년 무렵이다. 부산향토문화백과 <세거 성씨 현황>에서 청주 한씨 입향조 한지(韓址)의 부산 동래(수안동) 입향 시기가 1700년대라는 점에 비정하면 크게 벗어난 시기는 아닌 듯하다.

“지계골에 정착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맑은 물이 우룡산에서 사철 풍부하게 흘러내렸어. 우물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지.”

1960년대만 해도 지금의 대양고등학교 아래 경사 지역 일대에는 목정밭이 많았다. 그러나 옛길을 따라 지계골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눈길이 미치는 가까운 곳에는 대부분 잘 개간된 밭에 싱싱한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대성극장

문현교차로 교통광장 녹지쉼터는 아래위 두 군데이다. 이 중 아래쪽의 작은 면적에 조성된 녹지쉼터 일부 부지에 대성극장이 있었다. 당시 주소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816의 7이었다. 극장 건물은 높은 천장뿐인 단관이었다. 총 526석 규모로, 1960년 개관해서 1978년 폐관했다.¹²⁾ 가끔 영화를 상영하는 대신 영화배우나 가수, 코미디언 등이 직접 출연해 ‘쇼’를 했다.

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영사실에서 전방의 스크린까지 조사하는 영사기의 밝은 불빛은 마치 쪽 뽕는 흰 기둥 같았는데 그 속에 온갖 먼지가 눈보라처럼 휘날렸다. 영화는 외화와 방화 각 1편씩 이른바 ‘2편 동시상영’을 했고, 아침

12) 부산극장사, 320P, 홍영철, 도서출판 부산포커, 2014.

일찍 영화를 보면 할인해 준다는 ‘조조할인’도 했다. 영화상영 중에도 판매원이 관객석 사이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땅콩이나 과자 등의 주전부리를 팔았다.



문현로터리 교통광장 녹지쉼터 <출처: 광태욱>

3) 문현곱창골목

문현곱창골목은 부산 남구 문현동 351-1 일원(문현4동)이다. 곱창골목이 형성된 것은 일제 강점 때인 1940년대로, 문현동 도축장에서 비롯되었다. 도축 대상은 돼지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전량 반출된 우암동의 ‘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도 보내졌다. 도축한 소고기 살코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만주 등지의 일본군 주둔지로 보냈다.



문현곱창골목 <출처: 광태욱>

당시 이곳에는 오일장이 열리는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도축 부산물을 거래하

거나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그중 내장은 곱창구이로 팔았는데, 돼지곱창은 값싸고 푸짐했으며 맛도 좋아 긴 세월 동안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식품이 되었다. 당시의 재래시장은 현 문현상가시장 건물이 있는 데서부터 약 1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벽산한성기린아파트 일원까지였다고 전해진다.

문현곱창골목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계기는 2001년 3월 개봉한 영화 <친구>의 촬영지였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붐비던 시기에는 일본 관광객이 다녀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2019년 12월 말경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춤했다. 그때부터 약 3년여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서서히 끊겼다. 인근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유동인구마저 줄어들었다. 하지만 손님맛이를 위한 염원을 담아 올해도(2025년) '문현곱창골목 축제'를 개최했다.

4) 도살막(도서막) 거리

현 문현교차로 곱창골목을 지나 우암로를 따라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100m쯤 가다 보면 배정고등학교, 배정미래고등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나란히 적은 흰 바탕의 철제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 안내판 위치에서 일제 강점 때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현 부산우유 본사가 있는 도로까지 1960~70년대만 해도 도축장을 가리켜 '거리'를 빼고 도살막 또는 도서막이라 불렀다.



도살막(도서막)거리 <출처: 곽태욱>

이곳 도축장이 문현동 시대를 마감한 것은 1980년대 초쯤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앞선 1975년 남구청이 개청 되고, 배정고등학교 서편 일대 급경사지에 형성된 하꼬방, 판잣집, 양철(도단)집, 루핑집, 슬레이트집 등이 전면 철거되었다.

도시정비사업은 점차 문현4동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주택지가 정비되는 사이에 도축장은 문현동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5) 장고개

남구에는 '장고개'가 두 군데 있다. 그중 한군데는 '용당 장고개'이다. 현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음악당 뒤쪽 오솔길을 지나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문 북쪽의 발독길을 거쳐 우암초등학교 서쪽으로 난 고갯길을 들어서면 '우암 장고개'가 시작된다. 여기서 또 장고개를 넘어 문현동으로 내려서면 이제는 동천을 건너 부산진성 아랫마을인 노하리(路下里)로 가서 부산진시장(옛날에는 부산진성 서문 앞)으로 갔다.

일제강점기에는 가끔 인근 지역 사람이 우암동의 소 검역소까지 가기 위해 소고삐를 바짝 옥죄고 가파른 이 고개를 넘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역소까지 가는 옛길은 요즘처럼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내리막길을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스텐공장 앞의 소로를 통해서 구 우암2동사무소 뒷길을 따라 내려가 아신아파트 앞길로 가야 하는 불편한 길이었다.

그러니 용호동이나 용당동 등지의 먼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지치기 마련이었다. 처음 집을 나설 때 오일장이 열리는 부산진시장을 가려던 마음을 접고 이곳 고갯마루 일대에서 임시 장을 열기도 했다. 이때 고갯마루 동편에 형성된 영계마을의 주민 중에는 자신이 키우던 염소나 닭을 팔거나 필요한 물건과 맞바꾸기도 했다. 현재 영계마을은 전면 철거가 진행 중이다.

[장고개]



문현4동 제당(祭堂) / 고갯마루 턱밑에 있다.
<출처 : 곽태욱>



주 간선도로
<출처 : 곽태욱>



이면도로(영계마을) 끝은 장고개 고갯마루이다.
<출처 : 곽태욱>

6) 영계마을

문현4동의 장고개 고갯마루 동편 산봉우리 밑으로 형성된 마을을 가리킨다. 해방 후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들이 들어와 이곳 일대에 농막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고, 그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도 하나둘 들어와 살면서 이곳 일대에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도 형성되었다. 주민 중에는 염소를 키우기도 했으나 주로 닭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영계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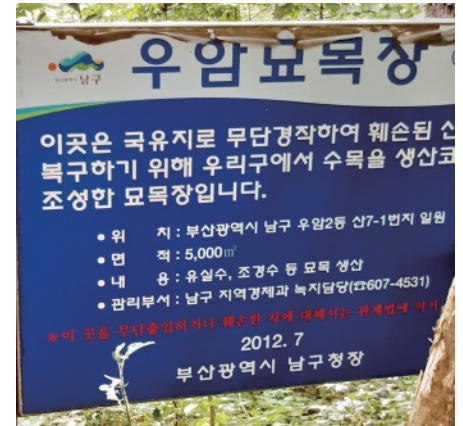
마을 원로인 김선이 할머니(2013년 2월 대담, 당시 91살)의 기억에는 용호동처럼 먼 데서 걸어온 사람 중에 너무 피곤해서 오일장이 열리는 부산진시장

까지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 고갯마루에서 물건을 팔았다고도 한다. 이곳 영계마을 한 주민은 간판 상호가 '영계마을'인 통닭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장고개 영계마을로 일컫던 고갯마루 동편 일대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7) 장자터

장고개에서 우룡산을 향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못미처 '우암묘목장'을 만난다. 이 우암묘목장 바로 위 산마루가 '장자터'이다. 왜 장자터라 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다. 다만 해운대 장산(菴山)의 만이 격인 산이 용호동의 장자산(長子山)이라 하므로, 장자터는 여러 산마루 중에서도 만이 격인 큰(넓은) 터라는 뜻에서 그리 불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한다.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였다는 설이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진년(1592) 4월 14일(음력) 동틀 무렵 우암만으로 상륙한 왜군은 총병력을 3개 부대로 나눠 1개 부대는 부산진성을, 1개 부대는 다대포성으로, 1개 부대는 동래성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반



우암묘목장 <출처 : 곽태욱>



2025년 장자터, 도로 왼쪽 축대 위의 산봉우리가 '장자터'이다. 오른쪽 흰색 펜스(울타리)는 현 대연3구역의 재개발공사 경계지점이다. <출처 : 곽태욱>

나절 만에 부산진성을 점령한 부대는 동래성을 향했고 그중 일부 병력이 경상 좌수영으로 보내져 무혈입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장자터는 이양선 출몰 등을 살피는 망대(望臺)였거나, 혹은 기우제를 올리는 제단(祭壇) 터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남구지(南區誌)』(1994)에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토성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고사포를 설치한 곳 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미군의 포부대가 있었다고 한다.

8) 노하다리(하구교)

노하다리는 부산진공원(자성대공원) 아래의 동편 마을이 노하리(路下里)여서 남구 쪽에서 부르던 나무다리 이름이다. 당시의 대선양조 공장 정문은 지금의 문현곱창골목에서 도로 건너편을 바라봤을 때 좌우에 공장 건물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는 공장 담 사이에 긴 골목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 골목 끝은 동천을 건너는 노하다리로 연결되었다. 경비실은 철로 옆 좌측 공장에 있었고, 우측 공장은 정문이 쭉 들어가서 차량이 회전할 정도로 넓었다. 노하다리를 건너려면 대선양조



노하다리, 다리 건너 오른편은 동구 범일동 놀원빌딩, 왼편은 한국전력공사 범일변전소 (출처: 광태욱)

좌우 공장 사이의 담장으로 생겨난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야 했다.

노하다리는 문현2동의 ‘썩은다리(무지개다리)’처럼 조심스럽게 건너야 하는 낡은 나무다리였다. 1980년 2월 범일교가 개통되기 이전만 해도 남구 지역 사람들이 동천을 건너 부산진시장으로 갈 때 유일하게 이용하던 편리한 지름길이기도 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유실되어 콘크리트 다리로 재축조했는데, 2025년 현재 최신 아스콘 바닥재에 철제 난간을 양쪽에 세워 한층 튼튼한 안정감을 준다.

9) 대선양조 공장에서 풍기는 구수한 주정 냄새

대선주조(주)의 전신인 대선양조(주)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7월에 부산 동구 범일동 401번지에 설립되었다. 지금은 부산 남구 문현동(문현4동) 821번지 일원이다. 현 부산골프클럽 실외연습장 중간지점쯤 되는 부지에 있었다. 공장건물 남쪽 벽 옆은 손수레가 지날 정도의 골목이 있었고, 골목 입구부터 동천변까지 1960년대만 해도 약 10여 채의 기와집도 있었다. 그 옆이 연탄공장이었다.

대선양조 공장에서 골목 위로 흰 연기가 솟아오르면 사방으로 그릴 수 없이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주정원료를 갓 삶아내 식힐 때 나는 냄새인지 침이 저절로 입안 가득 고였다. 주정원료는 주로 강냉이와 고구마 빼빼기였다. 화물 열차가 선로 위에 정차하면 긴 나무다리 발판 두 개를 공장 마당으로 걸쳐놓고 하역 인부들이 설 새 없이 오르내리며 주정원료를 어깨나 등에 젖어 날랐다.

10) 우암선 철로와 한일오피스텔 인근 ‘쿨다리’

일제 강점 때 우암동에는 ‘조목창고’라고 부르던 목재 공장이 있었다. 철도

침목이나 전봇대를 주로 생산했다. 1960년대 들어서도 땀감을 구하기 힘든 때라 학교를 파한 아이들은 도구를 챙겨 조목창고부터 달려갔다. 거친 원목 껍질을 벗겨내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품삯은 본인이 벗겨낸 껍질만큼 불 쏘시개로 얻어가는 것으로 대신했다.

원목 전봇대는 방부처리 때문에 기름에 담가 고온에 쪄냈다. 일제 강점 때는 만주 등지로 운반해서 일본군 통신선 부설에 사용되었다. 화물열차는 지금의 문현교차로 한일오피스텔 건물 옆 굴다리 밑을 통과했다. 어쩌다 화물열차가 오는 줄 몰라 위급할 때는 굴다리 벽에 코를 박고 바짝 붙어서면 겨우 한 뼘 정도 여유가 있어 큰 화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현재 우암동의 우암역에서 복선으로 나온 우암선은 동천삼거리의 부두교 앞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부산진역으로 향하는 선로만 남아 있다. 한때 연탄공장 진아산업으로 드나드는 인입선이 남아 있었으나 2017년 폐업 후 선로를 걷었다. 화물열차가 부전역까지 갈 때는 현 한일오피스텔 아래 굴다리를 지나 현 골동품거리에서 방향을 틀면 썩은다리(무지개다리)를 건너 부산진시장을 거쳐 부산진역으로 돌아갔고, 금융단지 앞으로 향한 우암선은 부전역까지 갔다.



왼쪽부터 ① 2025년 우암역 전경 ② 우암선 복선 철로에 잡초만 무성하다 ③ 우암선이 동천삼거리에서 부산진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현동 방면은 철로가 보이지 않는다 ④ 화물열차가 통과하던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아래 굴다리의 현재 모습 (출처: 곽태욱)

11) 문현4동의 동천 수상가옥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까지 와서 피난살이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주인 없는 땅을 찾아 산비탈 경사가 심한 곳도 가리지 않고 농막이나 움막을 지었다. 당시 동구 범일 3동에 속해 있던 현 문현4동의 배정고등학교(부산 남구 장고개로85번길 14-16) 아래는 경사도가 매우 심했다. 그래도 누군가 농막을 짓자 따라서 짓고 또 지었다.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고 마을도 형성되었다.

피난민들의 보금자리가 비탈면을 채우자 남은 곳은 동천 변뿐이었다. 그래서 5~6채의 수상가옥이 들어섰으나 1960년대부터 폐가가 늘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밀물 때는 방바닥 밑에서 물이 차오를 것 같았고, 태풍이나 해일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당시의 수상가옥은 조개잡이 계류장에 붙어 있었다. 지금의 문현교차로 근처 부산골프클럽 실외연습장 끝 지점쯤 되는 곳이었다. (수상가옥 형태는 문현2동의 '수상가옥' 참고)

[1960년대 문현4동 동천 하류의 주택과 공장건물 등의 위치]



① 대선양조 ② 진아산업(연탄공장) ③ 조개잡이배 계류장 ④ 수상가옥 ⑤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A와 B 사이에 일반주택 약 10여 채가 있었고, B 뒤편의 C④ 사이와 ⑤와 ⑥ 사이에도 일반주택 약 5~6채가 있었다.) (출처: 곽태욱)

12) 부산지역 마지막 연탄공장 ‘진아산업’

부산지역 마지막 연탄공장 ‘진아산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362번길 76(문현4동)에 설립되었다. 당시 행정동은 이 일대가 동구 범일3동에 속해 있었다. 1960년대 초반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공장에 인접한 일반주택에서 순전히 수작업으로 연탄을 찍어내던 영세한 ‘대선연탄’이 있었다. 그 후 컨베이어 벨트 시설을 갖춘 ‘초량연탄’이 대선양조 공장 근처에 들어섰다. 이 초량연탄을 인수한 진아산업이 출범한 것은 1969년 6월이다. 시중 브랜드는 ‘초량연탄’을 그대로 사용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문현축산물종합유통센터와’ ‘호포갈비 문현점’이 성업 중이다.

진아산업은 1970~80년대만 해도 약 300여 명의 종업원이 부산지역 연탄 사용량의 70% 이상을 감당했다. 1990년대 이후 소득수준이 나아지면서 연탄 수요가 급감했다. 기름과 전기와 가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자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어려웠다. 그래도 달동네의 수요를 걱정하며 연탄공장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누적된 경영난을 버틸 수 없어 결국 2017년 8월 회사 문을 닫았다.

13) 조개잡이 배와 동천삼거리 부두교

1960년대만 해도 동천 하류에는 약 2~30척의 조개잡이 배와 계류장이 있었다. 대선양조(주) 뒷담을 지나 연탄공장 뒤편 동천변이었다. 건너편에는 미 55보급창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곳 주민이 조개잡이를 했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조개잡이 배는 나룻배와 같은 형태였다. 삿대질 대신 노를 저었다. 돛을 올릴 수 있었으나 대부분 하지 않았다. 선체 길이와 너비는 대동소이했다.

동천 계류장에서 부산항 앞바다까지 노를 저어가면 대략 2~30분 걸렸다.

작업할 장소에 다다르면 선수와 선미에 각각 1개씩 긴 장대를 갯벌 바닥에 힘껏 꽂아 배를 고정했다. 그 뒤 촘촘한 철망이 달린 쇠갈퀴를 앞으로 던져 조금씩 앞으로 끌어오면 갯벌과 모시조개가 뒤섞여 올라왔다. 이 쇠갈퀴를 뺏전에 걸쳐놓고 마구 흔들어서 갯벌을 씻어냈다. 운 좋은 날은 모시조개를 두세 포대 건졌다.

남편이 건져온 모시조개는 온 식구가 매달려 일일이 까 조갯살만 따로 팔거나 까지 않은 그대로 팔기도 했다. 물론 조갯살을 바른 것과 아닌 것은 가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생계 활동도 1978년 12월 5일 총연장 72.5m의 부두교가 건설되면서 중앙동이나 대청동 등지의 원도심으로 나가는 시간은 단축되었으나, 앞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된 조개잡이 배는 그만 자취를 감추었다.

[1960년대 문현4동 동천 하류의 주택과 공장건물 등의 위치]



1978년 동천 끝단 동천삼거리에 부두교가 건설되면서 조개잡이(모시조개) 배가 앞바다로 드나들 수 없게 되자(노란 선 안) 자취를 감추었다. <출처: 꾀태육>

14)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부산 남구 우암로 337(문현동)에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공장이 있다. 가족이 필요한 미네랄 등의 각종 영양제나 사료의 보조첨가제를 생산한다. 1953년 5월 '조선농회 부산비료배합소'가 그 효시이고, 대한민국 최초(1호)라는 타이틀도 여러 개 된다고 한다. 농협사료공장 13개사 중 최초 설립한 1호 사료공장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인증획득 1호 사료 공장이다.¹³⁾

1960년대의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건물 앞은 넓고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특히 여름에는 화물열차가 사료를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소음 때문에 달콤한 낮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북항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을 만끽하는 그늘진 명당으로 그만한 데가 없었다. 화물열차 문턱에 긴 나무다리 두 개를 나란히 걸치면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고 친구 아버지였다. 그래서 개구쟁이들은 하역작업을 마칠 때까지 멀쩡이 떨어져 있었다. 하역 인부들은 사료 포대 2개를 포개어 등이나 어깨에 져 날랐다. 얼마 가지 않아 땀범벅이 되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역 작업이 끝나면 땅바닥에 떨어진 사료 알갱이를 주워 먹으려는 비둘기들이 앞다퉁 내려앉았다. 그래서 '비둘기공장' 또는 '사료공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15) 우암로변에 조성된 높고 긴 옹벽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공장 앞의 우암로 건너편 일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 남자 키보다 훨씬 높은 약 2m 넘는 매우 높고 긴 옹벽이 동천삼거

13)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홈페이지 참고

리까지 이어진다. 그 옹벽 위에는 무성한 잡초와 나무숲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누가 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성한 잡초와 나무숲이 없다면 매우 가파른 경사지가 틀림없어 보인다. 경사면 꼭대기에는 배정고등학교 건물이 위용을 갖추고 있으나 웬지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배정고등학교 아래의 급경사지를 받치고 있는 높고 긴 옹벽 <출처 : 광태육>

사실 이곳 일대의 급경사지는 주거지였다. 수백 채의 판잣집 등이 무질서하게 지어져 있었다. 누가 이곳에 처음 농막을 짓고 자리를 잡았는지 몰라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방직이나 대선양조에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거처가 되던 곳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 시기의 피란민들이 정착한 곳이기도 했다. 태풍과 폭우에 가슴 졸이던 주거지였다.¹⁴⁾ 남구청이 개청 되던 1975년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면 철거된 뒤 오늘에 이른 지역이다.

16) 표민수수소(漂民授受所)

부산항 개항은 1876년이다. 초량왜관(草梁倭館)은 조선조 숙종 4년(1678년)에 설치되었으니 약 200년 동안 일본인 전관 거류지였다. 이 초량왜관이

14) 현재 철거지역(우암로 360번길(2-42))은 수목과 잡초가 무성해서 급경사지로 보이지 않는다. 도로변 인도를 따라서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옹벽이 우암동에 접한 동천삼거리까지 길게 구축돼 있다.

용두산 부근으로 이진(移建) 설치됐던 무렵 부산 남구 문현4동(한때 우암동)에는 표민수수소(漂民授受所)가 운용되었다. 이 시설은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었거나 기타 여러 원인으로 표류하던 외국인을 수용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바다로 나와 조업을 하던 어부가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좌초하는 등 표류하던 끝에 조선 근해로 떠밀려오다 구사일생으로 조선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경우 조선 조정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초량왜관으로 인계되었고, 그곳 관리자의 심문을 거쳐 다시 표민수수소로 인계·수용하였다.

이때부터 동래부(東萊府)는 규정에 따라 일본인 표류민이 일본 본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소정의 식량과 의복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록은 쉬 찾을 수 없다. 또 표민수수소가 설치되었던 장소와 그 규모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표민수수소 설치 장소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왜군의 상륙지점인 '우암포(牛巖浦)'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표류민 수용소 설치 장소를 추측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가능성 있는 장소를 모으고, 이 지역의 여러 원로 주민 중에 자신이 까마득한 어린 시절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들었던 가물가물한 기억의 파편까지 모은 끝에 표민수수소 위치가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어렵풋하게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곳은 부산 남구 지역에서 1960년~1980년대까지 국내 굴지의 목재공장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성장기업주식회사 옆의 광명목재주식회사 기숙사 부근쯤 된다는 단서였다. 현 도로명 주소로는 '우암로 284번길 일원'으로, 현재 그 일대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문현4동의 끝 지점이고 우암동에 접한 경계지점이다. 이 일대는 문현동 장고개 스텝양식기 공장이 1990년대 후반까지 일부 공장이 가동되고 있던 곳으로, 동천을 바라보는 서편은 깎아지른 벼랑과 같았다. 그런 지형은 사람이 도저히 오

르내릴 수도 없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일본인 표류민이 수용소를 벗어난다는 생각은 쉬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조선 조정에서 일본인 표류민의 송환이 결정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으면 동래부에서는 가벼운 연회를 베풀어 주고 여벌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무명 옷감이나 쌀 등을 전별 선물로 지급했다고도 한다. 이로 미루어 당시 표류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엄중하면서도 박애(博愛)의 정신이 작동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17) 해상교통 '편리호'의 문현동 선착장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시절 육로를 통해서 중앙동의 부산시청(현 롯데백화점 광복점) 방면으로 가려면 범일동까지 걸어 나가서 전차나 버스를 타야 했다. 그에 비해 배만 타면 바로 도심으로 갈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편리호 1호~7호'로 불렸으나 실제 4척 정도만 운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객은 남구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도 있었다. 문현동에서 다대포까지 운항하기도 했다.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운



문현동 선착장. 1960년대 중앙동 시청 뒤의 선착장을 오가던 통통배(편리호) 선착장 자리 추정(흰색 원). 교각 밑으로 부두교가 보인다. <출처: 객태욱>

항을 중지할 때도 있었고, 기관 고장 때는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 하선할 때도 있었다. 우암 뱃머리로 돌아오는 배를 타려면 옛 부산시청 뒤의 대교동 선착장을 이용했다. 우암 뱃머리 선착장이 붐비면 문현동의 현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공장과 부두교 사이의 중간지점쯤 되는 동천 끝단에 약 10m 길이의 좁고 낡은 외나무다리 선착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18) 강선대(降仙臺)

문현동 강선대(降仙臺)는, 중국 진시황의 신하로 불로장생의 도를 닦는 방사(方士) 신분의 서복(徐福)이 2차 항로 때¹⁵⁾ 금강산부터 불로초를 찾아 계속 남행 끝에 부산까지 와서 이곳에 ‘신선이 내려온 곳’이라 해서 다녀간 곳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누군가¹⁶⁾ 장고개 어딘가에 사당을 마련하고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비석을 세워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나 광복 즈음의 어수선한 시기에 모두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부산지역의 ‘강선대’는 먼 옛날부터 북구 덕포동의 강선대(상·하), 사하구 하단동의 강선대(일명 에덴공원), 남구 문현동의 강선대 세 곳을 일컬어 왔다. 모두 빼어난 경승지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세 곳 중 1994년 12월에 발행된 『남구지(南區誌)』에서 문현동의 강선대를 “지금의 배정고등학교가 있는 산 일대를 광선대(廣仙臺)라 불렀는데 이 산꼭대기가 평퍼짐하여 신선들이 와서 놀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264페이지)라고 설명하며 ‘광선대’로 기재했다.

15) 기원전 91년 중국 사마천이 완성한 사기(史記)에는 서복이 2차 항로 때(기원전 210년) 원정대 3,000여 명의 대선단을 구성해서 동쪽을 향하여 바다를 건넜다는 ‘서복동도(徐福東渡)’ 기록이 있다. 서복은 1차 항로 때 뱃길을 따라 한반도의 섬 지역을 탐사한 끝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실패를 거울삼아 2차 항로 때는 한반도 내륙인 금강산부터 불로초를 찾아 남행 끝에 부산까지 와서 ‘신선이 내려온 곳’인 문현동 강선대를 다녀갔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서복은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자,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일본행’이었다는 것이 후대 학자들의 추정설이다.

16) 무속인이라는 설도 있다.

그 이후 부산시 지명총람에서도 ‘광선대’로 기재했는데.¹⁷⁾ 이 변형된 지명은 또 『남구의 민속과 문화』¹⁸⁾에서 ‘광선대(강선대)’라는 새로운 병기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그 이후 남구 향토사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결을 느끼다』(2014년)에서도 ‘광선대(강선대)’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했는데, 이와 같은 오류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또 다른 오류인 ‘광선대’라는 단독표기 형태의 안내표지판이 문현교통광장 녹지쉼터(아래쪽)에서 발견되었다. 한시바삐 ‘강선대’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오류가 점철된 ‘광선대’ 안내표지판 (출처 : 광태욱)

문현교통광장 녹지쉼터 안내표지판에 단독 표기한 ‘광선대’에는 괄호 안에 ‘동천삼거리’도 함께 표기했다. 이 표기는 광선대와 동천삼거리가 ‘같은 방향’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본래의 강

17) 부산지명총람(9) 제3권(1997. 6) 남구, 북구, 해운대편. 제3편 자치구 제7장 남구 제3절 문현동 '3. 명승고적 ○ 광선대(廣仙臺)' - 51페이지.

18) 2001. 부산남구민속회 편.

선대와 동천삼거리는 생성 배경도 다르고 그 위치와 ‘가는 길’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강선대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고증(문헌)과 함께 부연해 본다.

문헌동의 ‘강선대(降仙臺)’는 1895년 의정부에서 합편한 『영남진지(嶺南陣誌. 고종 32)』¹⁹⁾ 중 『부산진지(釜山鎮誌)』의 형승조(形勝條)에 “진의 동쪽에 있는 강선대는 옛부터 그 이적을 전하며(121페이지)”라든지, 또 승가정조(勝嘉亭條)에는 “강선대의 높은 자라등(降仙臺高麓背)(139페이지)”, 또 강선대조(降仙臺條)에는 “진의 동쪽 3리에 있다(142페이지)” 등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다.

『부산진지』의 여러 조에 등장한 ‘강선대’는 부산진성의 승가정(勝嘉亭)²⁰⁾ 여섯 기둥 중 하나에 걸린 주련에서 구체적인 형상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주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육우(六隅) 형태가 현재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부산진지』의 ‘승가정 조(勝嘉亭條)’²¹⁾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경치가 기록돼 있다.

“다음”

승가정(勝嘉亭)

자성(子城) 위에 있다. 임인년(壬寅年)에 첨사 이희봉(李熙鳳)이 세운 것이다. 산은 높고 숲은 깊으며 보는 곳이 평평하고 넓은 바다와 들어서서 봄이나 여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천만 가지이다. 여섯 개의 경치를 주련(柱聯)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구봉(龜峰)의 저녁연기가 푸르게 엉기는 것’, ‘크고 작은 섬들에 아침해가 붉게 비치는 것’, ‘강선대(降仙臺)의 높은 자라등’, ‘절영도(絶影島)에 신기루(蜃氣樓)가 일어나는

19) 국역 영남진지(國譯 嶺南陣誌) : 부산자료총서⑥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편(1996. 12). 각 대대포진지, 절영도진지, 부산진지의 내용을 합편하였다.

20) 부산진 첨사 이희봉(李熙鳳)이 처음 지은 육우정(六友亭)에 명명한 이름이다. 각 방향마다 6개의 주련을 걸어 놓았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장대(將臺)를 겸했다.

21) 국역 부산진지(부산자료총서 6)의 139페이지

것’, ‘석추(石湫)에 파도가 울고 흰 물거품을 뿜는 것’, ‘금용산(金湧山) 멧부리가 푸른 하늘에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것’

『부산진지』의 여러 조에 언급된 ‘강선대’는 『부진제영(釜鎭諸詠)』²²⁾의 <영가대 8경(永嘉臺 八景)>²³⁾에도 ‘강선유운(降仙流雲)’이라는 제하로 전하고 있다.

강선대 위를 흐르는 구름 降仙流雲²⁴⁾

연봉은 물에 가까워 여름에도 한기가 나고 蓮峯近水生寒
 위에는 태을선인 모시는 제단이 있다네 上有仙人太乙壇
 비 개이자 동남쪽으로 원기가 녹녹한데 雨歇東南元氣濕
 해님이 붉게 떠올라 바위봉우리에 두루 비치네 影浮紅旭遍巖巒

문헌동의 강선대에 대한 전설과 그 지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설립한 배정학원 교가에 등장한 이후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배정고등학교 뒷산만이 강선대라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보만강(寶滿江)²⁵⁾ 하류에 인접한 기수지역이라 수온이 높은 편이니 낮은 산봉우리 위로 구름이 흐를 리 만무하다. 그래서 신선이 내려와 노닐 만했는지도 의문이다.

22)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1618년부터 1845년까지 부산진성 관련 기록의 모음이다. 편찬자는 경상좌도수군절제사를 지낸 장인식(張寅植)으로 추정한다. 원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2005년 11월 번역하여 『국역 부진제영』을 발간하였다.

23) 조선 광해군 10년(1618)에 통신사 일원인 이수(李穡)가 중앙절(음력 9월 9일)에 영가대에 올라 주변 일대의 빼어난 경치를 칠언절구로 지은 여덟 가지 시문을 말한다. 그 내용은 『부진제영(釜鎭諸詠)』에 실려 있다. 영가대 8경의 시제(詩題)는 ‘영도로 돌아오는 배(影島歸帆)’, ‘창포로 내려앉는 기러기(倉浦落雁)’, ‘동향사의 새벽 종소리(東向寺 蠻寺曉鐘)’, ‘구봉의 저녁 봉합불(龜峰夕燧)’, ‘강선대 위를 흐르는 구름(降仙流雲)’, ‘승학산의 짙은 아지랑이(勝鶴暗嵐)’, ‘수정산의 석양(水晶返照)’, ‘황령산의 비 갠 날 떠 있는 달빛(荒嶺露月)’ - 『국역 부진제영』(부산광역시 동구청, 2005. 刊) 30페이지.

24) 『국역 부진제영』(부산광역시 동구청, 2005. 刊) 34페이지에서 옮겼다.

25) 일제에 의해 명명된 동천의 본래 옛 이름

또 장고개에 세워졌다면 ‘서불과차’라는 비석은 전설이라 쳐도, 『부산진지(釜山鎭誌)』의 여러 조(條)에 언급한 강선대와, 『부진제영(釜鎭諸永)』의 <영가대 8경> 중 ‘강선유운(降仙流雲)’은 명확한 고증(문헌)이다. 강선대의 형상이 ‘연봉(蓮峯)’이라는 구체성은 곧 부산진성 승가정에 올라서 바라본 강선대의 형상인 ‘높은 자라등(高鼈背)’과 그 맥이 닿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강선유운에서 신선의 존재인 ‘태을선인’을 모시는 제단이 연봉 위에 있다는 표현은 ‘장자터’에서 기우제를 올렸을 가능성도 짐작하게 한다. 만약 장자터에서 기우제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양선(異樣船) 등의 출몰을 감시·관측한 신선대의 망대(望臺)와 같은 기능을 했을 수도 있다.



신선대 봉오리산(신룡산)의 망대(望臺) <출처 :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부산남구청, 2014 刊) 253페이지>

그래서 『부진제영(釜鎭諸永)』과 『부산진지(釜山鎭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강선대는 부산진성에서 동쪽 3리(약 1.2km)에 있고, 높은 자라등 같은 연꽃 형상의 봉우리로 귀결된다. 그 옛날 오직 송림뿐이던 1618년 무렵에 부산진 첨사(정3품)가 부산진성 승가정에 올라 바라본 강선대는 어디였으며, 통신사 이수가 영가대에 올라 바라본 1842년의 강선대는 어디였는지, 이에 더하여 통신사 이수의 칠언절구 시문에 등장하는 ‘태을선인 모시는 제단이 있다

네’라는 그곳이 그 옛날 기우제를 올렸다면 천제등(天祭燈, 통칭 ‘우룡산’)까지 포함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2025년 부산 동구 좌천동 증산성 전망대 위에서 강선대를 품고 있는 문현4동 지역의 사진을 여기에 옮겨 놓고 그 옛날의 ‘강선대’를 가늠해 본다.

[높은 자라등(高鼈背) 같은 연봉(蓮峯) - 강선대(降仙臺)]



2025년 남구 문현4동의 일부 전경 ① 배정고등학교 : 교가에 등장하는 ‘강선대’는 점선 부분의 작은 아산을 일컬음(1987년 문현해운맨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작은 아산은 사라짐 ② 장자터 ③ 장고개 고갯마루(점선 표시 생략) ④ 오늘날의 동천 하류(화살표 끝은 ‘동천삼거리’ 근처) <출처 : 궂태육>

부산 남구의 마을과 명소

대연동 · 문현동

인쇄일 2025. 7. 28.

발행일 2025. 8. 6.

저자 공기화, 곽태욱

발행처 부산남구문화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566-2, 3층 T. 051-624-1333

기획처 부산남구문화원 원장 김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566-2 T. 051-624-1333

인쇄 하나출판사
T. 051)441-5919, 0502-119-9119

비매품
ISBN 000-00-00000-00-0 00000

